

면지



국기 / 국가 문장



- 현재의 코스타리카 국기는 1906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코스타리카가 1848년 중미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호세 마리아 카스트로(José María Castro)의 부인인 파시피카 페르난데스(Pacífica Fernández)가 프랑스 혁명 및 삼색기의 영향을 받아 현재와 같은 모양의 국기를 디자인하였다. 청색은 코스타리카의 하늘·기회·이상주의·인내를, 백색은 평화·지혜·행복을, 적색은 국가를 위해 흘린 순교자의 피와 국민의 온화함·관용을 각각 상징한다.



- 코스타리카 국가 문장은 3개의 화산과 함께 태평양과 대서양의 두 대양 사이에 펼쳐져 있는 지협(isthmus)을 묘사하고 있다. 대양에는 상선과 수평선에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며, 하늘에 있는 일곱 개의 별은 7개 주(San José, Alajuela, Cartago, Heredia, Guanacaste, Puntarenas, Limón)를 각각 상징한다.



국가 / 국화



- “Noble patria, tu hermosa bandera(Noble fatherland, your beautiful flag)”로 시작하는 애국가는 1852년 후안 모라(Juan Mora)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악대장인 마누엘 마리아 구티에레스(Manuel María Gutiérrez)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1853년 애국가로 채택되었다. 이후 다양한 가사가 사용되어 왔으나, 1903년 후안 라파엘 모라(Juan Rafael Mora) 대통령은 가사를 위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호세 마리아 켈레돈(José María Zeledón)의 가사가 선정되었다. 가사는 평화, 대지 등을 언급하고 있어 군대가 아닌 국민의 힘을 노래하고 있다.



- 1937년부터 1939년까지 진행된 코스타리카 국화 선정을 위해 원예업자, 대학생, 정치인 등이 참가한 투표 결과, 난의 일종인 구아리아 모라다(Guaría Morada)가 국화로 지정되었다. 주로 나무가지에서 자생하며 온화한 향기가 좋아 선물용, 장식용으로 사용되며, 코스타리카에서는 국화가 행운을 가져와 미래에 희망, 평화 및 사랑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목 차

I. 개관	9
1. 약황	10
2. 역사	11
3. 지형 및 기후	13
II. 정치 체제	15
1. 국가 형태	16
2. 헌법	16
3. 입법부	16
4. 행정부	18
5. 사법부 및 기타기관	19
6. 주요 정당	20
7. 정치 정세	23
III. 외교 정책	27
1. 외교 정책 기조	28
2. 외교부 조직 및 체제	30
3.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31
4. 국제기구 가입 현황	31
5. 주요 대외관계 현황	32
IV. 군사	35
1. 역사	36
2. 군사조약	36
3. 군사력	37





V. 경제·통상 **39**

- 1. 경제·통상 정책 기초 40
- 2. 경제 및 산업구조 42
- 3. 최근 경제통계 43
- 4. 주요 경제 동향 45
- 5. 통상·투자 환경 49

VI. 사회와 문화 **53**

- 1. 사회 특징 54
- 2. 문화·예술 56
- 3. 교육 60
- 4. 주요 언론 및 방송매체 62
- 5. 공휴일 65

VII. 우리나라와의 관계 **67**

- 1. 기본 관계 68
- 2. 외교관계 연표 68
- 3. 주요 인사 교류 현황 70
- 4. 對한반도 정책 81
- 5. 협정 체결 현황 82
- 6. 정부 관계 83
- 7. 경제·통상·개발협력 관계 86
- 8. 환경·녹색성장 협력 92
- 9. IT·전자정부 협력 95
- 10.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98
- 11. 문화·학술·스포츠 교류 98
- 12. 한국어·한국학 101
- 13. 태권도 102
- 14. 한류 103
- 15. 한인사회 및 영사 관계 104



VIII. 북한과의 관계 **109**

- 1. 외교관계 110
- 2. 경제관계 110

República de



Costa Rica

I. 개관



1. 약 황

- 국명 : 코스타리카 공화국(La República de Costa Rica)
- 면적 : 51,100km²(한반도의 1/4)
- 인구 : 약 510만명(2020년말 기준)
- 인종 : 백인/메스티소 84%, 물라토 7%, 원주민 2%, 흑인 1%, 기타 6%
- 수도 : 산호세(San José)
 - 인구 : 36만명(광역수도권 299만명)
 - 고도 : 1,173 m
-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연임금지, 중임가능)
 - 대통령 :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2018.5.8 취임)
 - 외교장관 : 로돌포 솔라노 키로스(2020.2.3 취임)
- 의회 : 단원제(57석, 임기 4년, 연임금지, 중임가능)
- 언어 : 스페인어
- 종교 : 가톨릭 76%, 개신교 14%, 기타 10%
- 국경일 : 9월 15일(1821.9.15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주요 경제지표 (2020,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 국민총생산 : 616.9억불
 - 1인당 국민소득 : 12,070불(중미 2위)
 - 경제성장률 : -4.1%

- 무역 : 262억불
 - 수출 : 117억불(의료기기, 가공식품, 바나나, 파인애플, 화학제품 순)
 - 수입 : 145억불(전자기기, 화학제품, 금속세공품, 플라스틱, 가공식품 순)
- 표준 시간 : GMT -06:00 (한국보다 15시간 느림)
- 화폐 단위 : 콜론(Colon)

2. 약사

- 1502.9.18 콜럼버스 4차 항해시 카리브해 연안 리몬(Limon)에 상륙
 - * 국가명칭 관련, 콜럼버스가 스페인 국왕에 “매우 자연미가 뛰어나며, 이전에 볼 수 없는 해변과 함께 금이 매우 풍부한 땅”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Costa Rica’(풍요로운 해변)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일설
- 1524년 콜럼버스는 코스타리카를 신스페인(New Spain)의 한 주로 편입하고 과테말라 소재 부왕청에서 관할
- 1562년 중앙고원 동부 지역에 식민지 수도 카르타고(Cartago) 건설
- 1821.9.15 과테말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함에 따라 코스타리카도 스페인 통치로부터 독립
- 1823년 중미연방 참여파(산호세)가 멕시코 편입파(카르타고)와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산호세(San José)로 수도 이전
- 1823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중미지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국가들은 중미연방을 구성 및 1841년까지 유지



- 1824년 최초의 국가수반으로 후안 모라 페르난데스(Juan Mora Fernandes)를 선출
- 1828년 니카라과 관할이었던 북서부 태평양 해안의 과나카스테(Guanacaste) 지역이 자발적으로 코스타리카에 합병
- 1838년 코스타리카 입헌의회는 독립을 선언하고 중미연방에서 탈퇴 및 완전한 독립
- 1856년 미국인 윌리엄 워커(William Waker)는 코스타리카를 침략하였으나, 후안 라파엘 모라 대통령은 시민군과 함께 윌리엄 워커 군대와 전투에서 승리
- 1869년 선거제도 도입과 함께 평화로운 민주주의 시대 시작
- 1870년 토마스 가르디아(Tomas Guardia) 대통령은 무상 의무 초등교육 시행
- 1940년 라파엘 앙헬 칼데론(Rafael Ángel Calderón) 대통령은 국민연금 및 최저임금보장 제도 시행
- 1948년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정권이양을 거부하자 내전 발발, 대농장주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José Figueres Ferrer)가 결성한 의용군이 승리후 군대폐지 선언
- 1949년 1949년 제정 헌법에서 군대폐지를 명시하고, 행정부 분권화, 지방자치제도 도입, 감사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 현재의 정치제도 근간을 마련
- 1987년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Óscar Arias Sanchez) 대통령은 중미평화협정 체결로 중미지역 내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

- 1990년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라파엘 앙헬 칼데론(Rafael Ángel Calderon) 대통령 취임
- 1994년 국민해방당(PLN)의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올센(José María Figueres Olsen) 대통령 취임
- 1998년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미겔 앙헬 로드리게즈(Miguel Ángel Rodríguez) 대통령 취임
- 2002년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아벨 파체코(Abel Pacheco) 대통령 취임
- 2006년 국민해방당(PLN)의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Óscar Arias Sanchez) 대통령 취임
- 2010년 국민해방당(PLN)의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Laura Chinchilla Miranda)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
- 2014년 시민행동당(PAC)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Luis Guillermo Solís Rivera) 대통령 취임
- 2018.5.8 시민행동당(PAC)의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현 대통령 취임

3. 지형 및 기후

가. 지형

- 중미지역 남부에 위치한 코스타리카는 북쪽으로 니카라과, 남쪽으로 파나마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의 카리브해를 접하고 있음.



- 국토를 북서에서 남동으로 관통하는 양대산맥(최고해발 3,819m)의 영향으로 국토 중앙부분에 고원지대(산호세 및 카르타고 위치)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서쪽의 태평양 연안과 북동쪽의 카리브해 연안은 각각 저지대로 형성
- 국토의 약 54%가 산림이며, 다음으로 약 30%가 초원
- 5개의 활화산(Arenal, Irazu, Poas, Rincón de la Vieja, Turrialba)을 포함하여 휴화산, 사화산 등 120여개 화산을 보유
- 지질학적으로 4개의 지각 판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며, Arenal 화산을 제외한 4개의 활화산에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각각 1회 이상 용암 등 분출

나. 기후

- 코스타리카는 열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연교차는 크지 않으며, 고도에 따라 산악지역은 18~30°C, 해안지역은 23~35°C의 기온 유지
- 12월-4월은 건기이고, 5월-11월은 우기
- 수도 산호세는 평균 해발고도 1,172m에 위치하고 있어 연중 21~29°C의 온화한 기온 유지

República de



Costa Rica

II. 정치 체제



1. 국가 형태

-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3권 분립)

2. 헌법

- 코스타리카 헌법은 독립 이후 14차례 변경
 - 1821년, 1823년 3월, 1823년 5월, 1824년, 1825년, 1841년, 1844년, 1847년, 1848년, 1859년, 1869년, 1871년, 1917년, 1949년
- 1949년 제정 현재 헌법의 주요 내용
 - 행정부 분권화 및 정책결정을 위해 국무회의 창설
 - 지방자치제도 도입(자율권 부여)
 - 감사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국회에 행정부 각료 출석 요구권 및 특정사안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권한 부여
 - 군대 폐지 등

3. 입법부

가. 구성

- 의석 : 57석(단원제, Legislative Assembly)
- 임기 : 4년(연임금지, 중임허용)

- 선거(직선제) : 7개 주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회기
 - 정기의회 회기 : 연 2회(5.1~7.31 및 9.1~11.30)
 - 임시의회 회기 : 행정부가 소집 가능
- 의장단 : 임기 1년(매년 5.1 구성)
 - 의장, 부의장, 서기(2명), 서기보(2명)
 - 매년 5.1 신임 의장단 구성후 의회 소집일에 대통령 국정연설

나. 정당별 의석 분포(2018.5월-2022.4월 임기, 2021.10월 현재)

정당명	의석수	정치성향
국민해방당(PLN)	17	중도
시민행동당(PAC)	10	중도좌파(집권당)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8	중도우파
국가부흥당(PRN)	7	우파
국가통합당(PIN)	2	좌파
기독교사회공화당(PRSC)	1	중도우파
넓은전선당(FA)	1	좌파
신공화당(PNR)	6 (무소속 의원그룹)	우파 및 극우
무소속	5	
계	57	

다. 의회 위원회 구성

- 전권 위원회(Comisiones con Potestad Legislativa Plena)
 - ※ 본회의 상정없이 사안 처리(제1,2,3 전권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19명의 의원으로 구성)



- 일반 상임위원회(Comisiones Permanentes Ordinarias) : 6개 위원회
 - 경제위원회, 농축산위원회, 재무위원회, 법률위원회, 사회위원회, 정부 행정위원회
- 특별 상임위원회(Comisiones Permanentes) : 15개 위원회
 - 환경, 지자체, 과학기술교육, 청소년, 관광, 공공재정, 인권, 여성, 국제 관계, 마약 등

4. 행정부

가. 구성

- 대통령(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반), 제1부통령(경제), 제2부통령(사회), 23개 중앙부처로 구성
- 대통령 선거 및 임기
 - 직접선거로 선출(부통령 러닝메이트)
 - 임기 4년, 연임금지, 중임 허용
 - ※ 코스타리카 헌법은 민주정치 제도에 최대의 위협인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연임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 및 경찰권 부여를 통한 공명선거보장 등을 규정
- 행정부처(장관급)
 - 대통령실, 외교부, 재무부, 치안부,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공공사업 교통부, 경제부, 대외무역부, 농축산부, 보건부, 노동부, 주택부, 과학 기술통신부, 문화부, 기획부, 환경에너지부, 공보부, 관광부, 사회복지부, 여성부, 체육부
- 지방은 7개 주, 83개 시(Canton)로 구분

- 주지사는 없고, 83개 시장은 4년 임기로 선출(연임 가능)
- 7개 주 : San José, Cartago, Heredia, Alajuela, Guanacaste, Limon, Puntarenas

나. 주요 인사

- 현 정부
 - 대통령 :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2018.5.8 취임)
 - 외교부 장관 : 로돌포 솔라노 키로스(Rodolfo Solano Quiros) (2020.2.3 취임)

5. 사법부 및 기타기관

가. 대법원

- 2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 임기 8년, 의회 선출, 1회 연임가능
 - ※ 대법원장 : 페르난도 크루스 카스트로(Fernando Cruz Castro, 2018.8월 취임)
- 4개 재판부(Sala)로 구성 : 민사/노동/형사/헌법 재판부
 - ※ 헌법재판부(Sala IV)
 - 코스타리카는 법안 확정 전 헌법재판부에서 위헌 여부 심의
 - 법안이 입법부에서 통과되더라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헌법재판부에 위헌 제소 가능(조약 비준 동의안은 헌법재판부의 자동 심의 필요)
 - 헌법재판부 부결시 법안 폐기, 통과시 입법부에서 재차 투표 필요
- 검찰청(Fiscalia General)과 사법수사국(OIJ)은 사법부 소속



나. 기타 기관

- 1) 선거관리위원회(Tribunal Suprema de las Elecciones)
 - 법관 3명(대법원 임명, 임기 6년)과 6명의 대체 법관으로 구성
 - 공명선거 보전을 위한 기관으로 강력한 권한 보유
- 2) 감사원(Contraloría)
 - 공공계약 등 정부사업 검토
 - 절차상 요구조건 준수 여부를 엄격히 감독
- 3) 국민권익위원회(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 모든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민원 대변

6. 주요 정당

가. 국민해방당(PLN : Partido Liberación Nacional)

- 코스타리카 국가 영웅인 호세 피게레스(José Figueres) 대통령이 1951년 창당한 정당으로 현재까지 가장 전통 있는 정당
- 당초 중도좌파(사회민주주의) 성향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중도 성향으로 변모(FTA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등)
- 1990년까지 40여년간 세차례를 제외하고 계속 집권하여 왔으며, 1990년 이후에는 기독교통합당(PUSC)과 정권을 주고 받으며 2006년까지 양당 체제 형성

- 2006년 대선과 총선에서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이 소수 정당으로 전략한 이후 유일한 거대정당으로 2006-10년 및 2010-14년 연속 집권
- 2014년 실정에 따른 대선에서 시민행동당(PAC)에 패배
 - 의회내 다수당이냐, 의석수는 24석에서 18석으로 대폭 감소
- 2018.2월 대선에서도 시민행동당(PAC)에 패배하였으나,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는 유지 중

나. 시민행동당(PAC : Partido Acción Ciudadana)

- 2000년 Ottón Solís 등이 국민해방당(PLN) 등에서 탈당하여 창설한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정치에 시민 참여 및 관여를 정강에 포함
 - 양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해방당(PLN) 및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의원 일부가 탈당하여 창당
- 2002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국회에 진출하였고, 2006년 및 2010년 대선 및 총선에서 2위 득표
- 2014년 대선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창당 14년만에 집권(원내 제2당)
- 2018.2월 대선에서 카를로스 알바라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파브리시오 알바라도(Fabrizio Alvarado)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시민행동당(PAC)이 2기 연속 집권

다.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 Partido Unidad Social Cristiana)

- 1983년 기독교민주당 등 기존 4개 정당을 통합하여 창당된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으로, 인본주의, 기독교회주의 원칙, 사회적 법치 등의 가치를 중시



- 2006년까지 3차례 집권(1990-94년, 1998-2002년, 2002-06년) 하면서 국민해방당(PLN)과 양당체제를 형성
- 2004-05년에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출신의 전 대통령 두 명이 국책사업 부패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국민불신 심화로 소수정당으로 전략
- 2014년 대선시 로돌포 피자(Rodolfo Piza) 후보가 6% 획득에 그친 반면, 의회에서는 57석 중 8석을 획득하여 제3당 유지
- 2018년 대선시 로돌포 피자(Rodolfo Piza) 후보가 재출마하여 16%를 획득하고, 의회에서도 57석 중 9석을 획득하여 제3당 유지
 - 일부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의원이 현 알바라도 정부의 장관직을 수임 중

라. 국가부흥당(PRN : Partido Restauración Nacional)

- 2005년 기독교 관련 정당에서 탈당한 카를로스 아벤다뇨 칼보(Carlos Avendaño Calvo)가 창당한 우파 성향의 정당으로 기독교회 보수주의 가치를 추구
- 2014.2월 대선에서 아벤다뇨(Avendaño) 후보가 1.4%를 득표하는 데 그쳤고, 당에서 유일하게 의원으로 당선
- 2018.2월 대선에서 파브리시오 알바라도(Fabricio Alvarado) 후보가 1차에서 24.9%를 득표하였으며, 결선투표에서 시민행동당(PAC) 소속의 현 알바라도 대통령에 패배
 - 2018.2월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국가부흥당(PRN)은 14석을 획득하였으나 현재는 탈당 등으로 7석 유지

마. 신공화당(PNR : Partido Nueva República)

- 2019.1월 파브리시오 알바라도(Fabrizio Alvarado) 전의원은 국가부흥당 (PRN)을 8명의 의원과 함께 탈당하여 창당하였으나, 현재는 6명의 무소속 의원 그룹(block)으로 활동 중
 -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우파 성향의 의원으로 부터 극우 성향의 의원까지 포진

7. 정치 정세

가. 2022.2월 대선 및 총선 동시 실시

- 코스타리카는 2022.2.6.(일)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코스타리카 정치는 이미 차기정부 집권을 위한 선거 정국에 돌입 중
 - 대선에서 40%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간 결선 투표로 승자가 결정되고, 2022.5월에 신정부 출범
- 1998년 이후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1998-2006년), 국민해방당(PLN, 2006-14년), 시민행동당(PAC, 2014-22년) 순으로 각각 2회 연속 집권하여 왔으며, 차기 대선시 정권교체 여부가 주목

나. 여·야당 주요 동향

〈 집권 여당 〉

- 알바라도 정부는 2018.5월 집권 이후 진보적 이미지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여소야대의 구도 하에서 공약사항 등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어 2020년 초까지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



- 다만, 2020년 코로나가 발생후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인 보건 및 경제적 대응조치로 긍정적 평가가 65%를 기록

- 그러나, 인프라 관련 뇌물수수 등 각종 정치 스캔들, IMF 구제금융 협의 과정에서 난맥상, 18%의 높은 실업률, 예산의 47%를 외채상환에 사용하는 등 낮은 경제회복 가능성 등으로 국민들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 야당 >

- 그간 야당은 여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폭로 및 공격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정부에 대한 정치적 견제로 정부는 주요 정책과제를 거의 추진할 수 없는 상황

- 각종 법안 심의 지연, 미주개발은행(IDB)의 차관도입 승인 거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차관 도입안 승인 지연 등

※ 대부분의 법안, 주요 정책사항, 차관 도입 등 의회에서 승인/통과를 위해서는 총 57명의 의원 중 2/3 다수결인 38명의 동의가 필요

다. 주요 대선 후보

- 시민행동당(PAC, 집권여당) : 웰메르 라모스 곤잘레스(Welmer Ramos Gonzales) 현 의원
- 국민해방당(PLN) :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José María Figueres) 전대통령(1994-98년)
-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 리네스 사보리오 차베리(Lineth Saborio Chaverri) 전 범죄수사국 국장
- 신공화당(PNR) : 파브리시오 알바라도(Fabricio Alvarado) 전의원

- 국가부흥당(PRN) : 에두아르도 크루이샤안크(Eduardo Cruickshank)
현 의원 등

라. 향후 전망

- 2021.10월말까지 20여명 이상의 대선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2.6. 대선시 4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어 4월경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현재 국민해방당(PLN) 소속의 피게레스(Figueres) 후보가 대선에서 1-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례없이 대선 후보자 난립 및 50% 이상의 부동층으로 매우 유동적인 상황
- 또한, 동시에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국민해방당(PLN)이 과반수 의석 확보는 어려우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República de



Costa Rica

III. 외교 정책



1. 외교정책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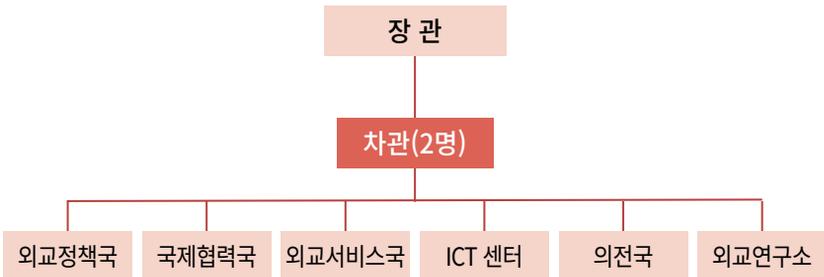
- **(외교기조)**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하면서, 중소국가로서 실리외교와 함께 중립국가 외교노선을 견지 중
 - ※ 코스타리카는 1983년 영구적, 적극적, 비무장 중립 선언을 하였으며, 2014년 중립 국가로서의 코스타리카임을 입법화
 - 1987년 오스카 아리아스(Oscar Arias) 대통령이 중미평화협상을 주도한 결과로 노벨평화상 수상
 - 미주인권재판소 및 유엔평화대학 유치, 유엔인권이사회 적극 참여, 무기 거래조약 채택(2013년) 주도
 - 2015년 미국행 탈쿠바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 2020.10월 솔라노 외교장관은 서한을 통해 종전선언 등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이니셔티브 및 판문점 선언 지지
 - 2021.4월 알바라도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 의사 표명
- **(기후변화 대응/환경 중시)** 중미의 모범적인 환경보호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
 - 2019.2월 2018-50 탈탄소국가계획 발표
 - 2019.10월 Pre-COP 25 개최
 - 2019년말 지구챔피온 상 수상(국가로는 최초)
 - 2020.9월 카를로스 마누엘 로드리게스(Carlos Manuel Rodriguez) 전 환경에너지부 장관, 지구환경기금(GEF) 총재로 임기 시작(개도국 출신의 첫번째 총재로 선출)
 - 산림,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 확보 :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for people and nature) 등 이니셔티브 주도

- 기후취약국포럼(CV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활동 적극 참여
-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이용률 99%(수력, 지열, 풍력 순)
- 세계 5위의 환경보존국으로 국토의 25%를 보존 지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 단위면적(km²)당 생물다양성 수준 세계 2위
- 코스타리카 출신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2010-16년) 주도 하에 COP21 파리 기후변화협약 타결(2015.12월)
- **(다자주의 중시)** 유엔, 미주기구(OAS),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ECLAC), 중미통합체제(SICA) 등 역내 다자기구를 통해 지역외교를 적극 활용
 - 전통적으로 유엔 및 미주기구(OAS) 외교 중시
 -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의장국 수입(2014년)
 - 2021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 수입
 - ※ 2021년 하반기에는 과테말라가 의장국
 - 2021-22년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의장국
- **(OECD 가입)** 2015.4월 OECD 가입논의 시작후 6년만인 지난 5.25.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38번째 회원국으로 OECD 가입 완료
 -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에 이어 4번째 가입
 - OECD 가입에 따른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적극적 참여 전망
- **(비핵·군축에 적극 참여)** 코스타리카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tado sobre la Prohibición de Armas Nucleares)” 채택(2017.7월) 및 발효(2021.1월) 주도
 - ※ 핵무기금지조약 : 핵무기의 개발, 실험, 소유, 사용 및 사용 위협, 배치 등을 영구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핵실험 피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최초의 다자조약



2. 외교부 조직 및 체제

- (연혁) 외교부는 1844년 창설, 1962년 교황청 업무도 관장함에 따라 명칭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Worship’으로 개칭
 - 외교부는 1920년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가 기증한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Yellow House(Casa Amarilla)’불림.
- (조직) 장관, 차관 2명(양자·국제협력담당/다자담당), 국장 6명, 감사·회계·여권 등 6개의 행정 지원부서로 구성
 - 외교정책국장(DG of Foreign Policy) : 국제법·인권법과, 경계·국경·국제조약과, 국제기구과, 지속가능개발·환경과, 지역과, 군축·테러·조직범죄 담당과
 - 국제협력국장(D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학술지원과
 - 외교서비스국장(DG of Foreign Service) : 영사과, 외교과
 - ICT센터국장(DG of ICT Center)
 - 의전국장(DG of State Ceremonial Protocol and Worship) : 국가행사과, 특권면제과
 - 외교연구소장(DG of Manuel Maria de Peralta Institute)
- 외교부 조직도



3.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가. 코스타리카 주재 외국공관

- 대사관 : 39개국
 - 북미(2), 중남미(19), 유럽(8), 아시아(4), 중동(3), 기타(3)
- 국제기구(사무소 포함) : 59개
- 명예영사관 : 44개국

나. 코스타리카의 재외공관 현황

- 대사관 : 46개국
 - 북미(2), 중남미(21), 유럽(10), 아시아(6), 중동(4), 기타(3)
- 영사관 : 13개
- 국제기구대표부 : 4개

4. 국제기구 가입 현황

- UN, OAS, FAO, UNESCO, UNIDO, IAEA, CTBTO, WTO, IMF, World Bank, IDB, UNCTAD, IMO, UNDP, ILO, UNICEF, SICA, CABEL, ECLAC, OECD 등 총 54개 국제·지역기구에 가입



5. 주요 대외관계 현황

가. 對서방 외교

- (외교 기초) 민주주의, 평화, 인권, 기후변화 등 보편적 가치 기반 외교 정책을 지속 전개해 가면서 미국, EU 등과의 전통적 우호적 관계 지속
- (對미 외교) 냉전기간 동안 미국은 중미 5개국 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코스타리카를 역내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지정하여 정치적, 경제적 지원
 - 미국은 코스타리카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2009.1월 중미-미국 FTA(CAFTA) 발효로 양국 통상관계 강화
 - 2013.5월 오바마 대통령 방문 ▶ 2020.1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문 ▶ 2020.11월 알바라도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 ▶ 2021.6월 블링컨 국무장관 코스타리카 방문시 중미 북부3국 이민문제의 근원적 문제 해결 협의 등
- (對EU 외교) EU는 역사적 연관성으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중미지역 국가에 대하여 많은 경제 및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를 중미의 중심국가(대부분 코스타리카 소재 공관에서 인근국 겸임)로 간주하여 다양한 협력을 추진
 - 코스타리카의 EU관계는 주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일방적 특혜를 받는 상황
 - 특히, 스페인은 역사·문화적 유대, 통상투자 등 각종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로서, 2021.6월 스페인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였으며, 동 계기에 스페인-SICA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협력방안 협의

나. 對중미 외교

- (외교 기초) 세계적인 지역통합 추세에 따라 코스타리카도 중미지역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미국가들의 국제무대 영향력 증대를 위한 공동 보조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미주개발은행(IDB) 등을 중심으로 역내 통합 및 발전 추진 중
 -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의장국 수임(2014년) ▶2021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 수임 ▶2021-22년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의장국 수임 등
 - 한편, 니카라과와는 경제·사회·정치적 차이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특히 2010년 발발한 카리브지역 Calero-Portillos섬 영유권 분쟁, 태평양·대서양 연안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으로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으며, 최근에는 니카라과의 민주주의, 인권상황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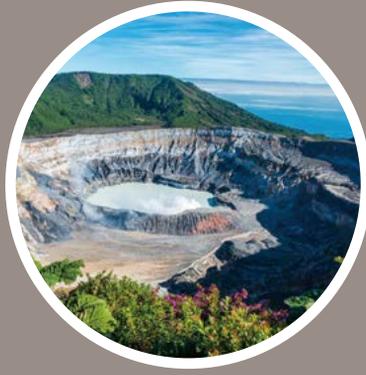
다. 對아시아 외교

- (외교 기초) 코스타리카는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아시아 지역 진출과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 아시아 접근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한·중·일 3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
 - ※ 솔라노 외교장관은 2020.2월 취임후 언론과 인터뷰시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익을 위한 정책협의, 경제협력, 투자진흥 등의 대외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언급
- (對중국 외교) 코스타리카는 1944년부터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어왔으나, 2007.6월 중미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였고, 이후 미중관계 구도 하에 실리적인 외교를 추진 중
 - 2010년 중국은 코스타리카와 FTA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미국에 이어 제2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중국은 국립경기장 무상 기증(약 1억불), 산호세-리몬 도로확장 사업 차관(4억불) 제공 등 원조외교로 코스타리카에 접근 중
- 2012.8월 로라 친치야(Laura Chinchilla) 대통령 중국 방문, 2013.6월 시진핑 주석 코스타리카 방문, 2015.1월 루이스 기에르모(Luis Guillermo) 대통령 중국방문, 2018.9월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관한 MOU 체결 등 실질협력 관계 증진
- 다만, 최근 중국의 도로건설 등 인프라 공사지연, 신뢰부족, 정치체제 상이 등 중국의 지원에 대해 비판적 여론도 존재
- **(對일본 외교)** 일본은 코스타리카가 OECD 기준 고중소득국(UMIC)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무상원조 제공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국제협력단(JICA)은 매년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 중
 - ※ 2017.7월 Borinquen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한 2.4억불 차관 지원 등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중이나 최근 실질협력은 미미한 것으로 관측
- **(對중동 등 외교 다변화)** 루이스 기에르모(Luis Guillermo, 2014-18년) 대통령은 한·중·일 이외에도 UAE·카타르·싱가포르·인도네시아·호주·카자흐스탄 등과의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 중
 - 2015.10월 외교장관, 아제르바이잔 및 카자흐스탄 방문
 - 2016.3월 외교장관, 동남아 3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방
 - 2014.10월 주터키대사관 설치 및 2016.3월 주상해총영사관 설치 등

República de



Costa Rica

IV. 군사



1. 역 사

- 1948년 내전에서 승리한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José Figueres Ferrer) 대통령은 군대를 폐지하였으며, 1949년 제정 헌법에 군대폐지 조항을 포함
 - 1821년 코스타리카 독립 이후 두 번째인 1948년 내전에서 2천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왔으며, 이에 피게레스 대통령이 군대폐지를 결정
 - 1949년 헌법 제12조 군대폐지 조항에 따라 공공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찰력만 보유
 - 군대폐지에 따른 국방예산은 보건·교육·문화 등의 정책사업에 사용
- 국방의 기반은 미주지역 집단안전보장체제인 미주상호원조조약(Tratado Interamericano de Asistencia Recíproca)에 의존하고 있으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국회동의 하에 선포하고 유엔안보리 조치 시까지 징병 및 교전 명령 가능

2. 군사조약

- 1948.12월 미주상호원조 조약
- 1954.12월 미주-코스타리카 군사사절단 협정

3. 군사력

- 정규군 미보유
- 공공치안부 산하 경찰조직(약 15,000명)을 통해 국경순찰, 마약단속, 국내 치안질서 유지 등 업무를 수행

I. 개관

II. 정치 체제

III. 외교 정책

IV. 군사

V. 경제 동향

República de



Costa Rica

V. 경제·통상



1. 경제·통상 정책 기조

가. 개방경제 및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추진

- 코스타리카(인구 510만)의 국내시장은 협소하여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양자·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해 온 결과, 2021.10월 현재 8개의 다자 FTA와 7개의 양자 FTA가 발효되었으며, 2020년 기준 코스타리카 전체 수출의 약 93%, 전체 수입의 약 84%가 FTA 상대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다자간 FTA】

- 중미통합시장(CACM, 1963년 발효)
- 중미-도미니카공화국(2002년 발효)
- 중미-칠레(2002년 발효)
- 중미-파나마(2008년 발효)
- 중미-도미니카공화국-미국(CAFTA-DR)(2009년 발효)
- 중미-멕시코(2013.7월 발효)
 - ※ 1995년 발효된 코-멕시코 양자 FTA 대체
- 중미-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2013.10월 발효)
- 중미-한국(2021.3월 발효)

【양자간 FTA】

- 코-캐나다(2002년 발효)
- 코-카리브해공동체(2005년 발효)
- 코-중국(2011년 발효)

- 코-페루(2013.6월 발효)
- 코-싱가포르(2013.7월 발효)
- 코-EU(2014.8월 발효)
- 코-콜롬비아(2016.8월 발효)

- 코스타리카는 이외에도 호주,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등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 적용
- 코스타리카는 태평양동맹 가입을 검토(2014.2월 정회원국 가입 이행계획서 서명) 중으로 현재는 옵저버

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시행

-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 낮은 부패율을 보이고 지리적 위치, 거주환경 조건, 양질의 인력, FTA를 통한 주변시장 접근성 등이 강점으로 첨단제조업, 서비스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을 투자 유치
 - Intel(프로세서), St. Jude Medical(의료기기), Abbott(제약), HP(기술 지원 센터) 등 300여개 기업이 투자
 - ※ 인텔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을 위해 1997년 진출 및 2014년 철수하였으며 당시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 최근 생산라인에 6억불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설하여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재생산 등 준비 중
- 1990년 자유무역지대(FTZ)법 제정(2010년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다. 서비스업 중심의 국내산업 육성

- 전통적으로 농업과 관광 중심의 경제였으나, 1990년부터 전자산업, 의료 기기 및 의료부품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보험 및 통신시장 개방, 에코관광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 중임.

2. 경제 및 산업구조

- 1990년 자유무역지대법을 제정한 이래 전통적인 농업 및 관광 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 및 산업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
 - 수출 및 산업 진흥을 위해 1990년 자유무역지대법을 제정
 - 수출지원금 철폐가 골자인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 개정에 따라 2010년 자유무역지대법 개정(법령 8794)
- **(농림수산업)** 비옥한 화산토양 및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특히 농업이 발달
 - 코스타리카 GDP의 약 8%, 노동력의 13%를 차지
 - 중앙 고원지대의 커피, 해안 및 북부지방의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이 유명
 - 고산지대에는 낙농업이 발달하여 내수시장 및 중미시장에 공급
 - 주요 수산물은 참치, Tilapia(민물고기의 일종), 만새기 등으로 주로 미국에 수출

- **(제조업)** 코스타리카 GDP의 약 20% 및 전체 노동인구의 약 18.5%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2007년 이래 서비스업의 확장으로 인해 점진적인 쇠퇴를 보이고 있는 추세
 - 자유무역지대는 전체 제조업 상품수출의 70% 차지
- **(서비스)** 코스타리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코스타리카 GDP의 약 72% 및 전체 노동인구의 69%가 종사 중
 - 실질적으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지정된 부분보다 더 개방되어 있는 수준
- **(관광업)**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우림이 발달하고, 다양한 동식물 관찰이 가능하여 생태관광(Eco Tourism) 발달
 - 2019년 기준 전체 GDP의 6.5%대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대폭 감소(2019년 관광객수 대비 68% 감소)
- **(경쟁정책)**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조건으로 경제에 참여 가능
 - 기본적으로 일반재화에 대한 물가통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단가, 대중교통 요금, 연료가격 등 일반 공공서비스 요금의 경우 공공물가서비스청에 의해 통제·관리

3. 최근 경제통계(코스타리카 중앙은행(BCCR) 2020년)

- 총국민소득(GDP) : 616.91억불
- 1인당 국민소득 : 12,070불(중미 2위)
- 경제성장률 : -4.1% (2017년 3.1%, 2018년 2.7%, 2019년 2.8%)



- 주요산업 비중 : 서비스업(71.6%), 제조업(20.4%), 농업·임업·수산업(8%)
- 무역규모 : 261.45억불 / 27.69억불 적자
 - 수출 : 116.88억불
 - 주요 수출품 : 의료기기(34%), 가공식품(19%), 바나나(9%), 파인애플(8%), 화학제품(6%)
 - 수입 : 144.57억불
 - 주요 수입품 : 전자기기(19%), 화학제품(15%), 금속세공품(9%), 플라스틱(8%), 가공식품(8%) 순
- 외국인 직접투자액 : 17.11억불
- 외환보유고 : 72.32억불
- 소비자물가지수 : -0.89%(통계청)
- 환율 : 1달러=618.19콜론(연평균)
- 재정적자 : 전체 GDP의 8.1%(재무부)
- 공공부채 : 전체 GDP의 67.9%(재무부)
- 실업률 : 20%(통계청)

4. 주요 경제동향 (2021.7월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발표)

가. 경제성장

-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 국내 관광부문 회복 추세, 작년말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진전상황에 따른 방역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국내 경제활동 회복 등 국내외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금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6.7% 성장
 - 코스타리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2-4분기 간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금년 ▲1분기 2.2% ▲2분기 6.7% 성장

나. 경기동향

- 2021.5월 기준 코스타리카의 산업별 경제활동지수(IMAE)*는 제조, 건설, 정보통신, 부동산, 금융 분야의 경우 2020.2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광산, 무역, 농업, 교육·보건 분야는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운송, 호텔·요식업이 저조

* 월별 경제활동지수(IMAE) : 2020.2월을 기준(100)으로 매월 코스타리카 통계청(INEC)이 발표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BCCR)은 시중 유동성, 재정안정화, 민간부문 지원 등을 위해 2020.6월부터 정책금리를 0.75%로 유지하는 등 금융완화 정책 유지
- 코스타리카의 주요 서비스 산업인 관광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 전체 관광 객수는 약 50만명 수준으로 작년 동기대비 34% 감소하였으나, 주요 국제 공항 통해 입국한 관광객 수는 점차 회복세
 - 2020년 상반기 관광객은 67만명으로 2019년 상반기 130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올해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다. 정부재정

- 2021년 상반기 기초재정수지(primary surplus)는 재정수입 3조 1,479억 콜론(51.32억불)에서 정부지출 2조 9,775억 콜론(48.54억불)으로 제한하여, 1,704억 콜론(2.78억불, GDP의 0.45%)으로 2008년 상반기 이래 첫 흑자 기록
- 2021.1-6월 정부 재정적자액은 7,449억 콜론으로 GDP의 1.97%, 공공 부채는 26조 2,267억 콜론으로 GDP의 69.29% 수준

라. 물가

- 2021년 상반기 코스타리카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1.1%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3%를 크게 밑도는 수준
-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대비 1.91% 상승하였으며, 금년 3월 부터 시작된 연료가격 및 환율상승에 기인하여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대비 0.76% 상승
- 지난 5월 ▲곡물(밀, 옥수수, 콩, 쌀) ▲원자재(철, 알루미늄, 아연, 구리) ▲비정제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최근 8년간 최고치를 경신

마. 고용

- 2021.3-5월 코스타리카의 실업률은 17.7%로 작년 동기대비 2.4%p 개선되었으며, 2020.5-7월 24.4%라는 최악의 실업률 기록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금년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2019.1월 11.3%)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실업인구 중 99.4%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상태 유지

바. 수출입

-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 재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
 - 금년 상반기 총 수출액은 71.06억불로 ▲2019년 57.50억불, ▲2020년 56.44억불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수산물(-4%)을 제외한 전 제품의 수출이 증가
- 2021.1-5월 재화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6.6%, 재화 수입량은 10.8% 증가
 - 금속 세공품, 화학품, 의약품, 식료품 제조용 원유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6.8% 증가한 것이 동 기간 수입증가의 주요인

사. 외국인직접투자(FDI)

- 2019년 3분기 이래 지속 감소하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1년 1분기 6.29억불(GDP의 1%)로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
 - 의료기기,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등에 집중된 무관세 지역 내 기업대상 투자의 증가가 금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의 가장 큰 요인(9.3% 증가분의 67%를 차지)
 - ※ 코스타리카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8년 GDP의 4.8%, 2019년 4.2%, 2020년 3.4%로 중남미 평균 2.0-3.0%, 세계평균 1.2-1.7%에 비해 높은 수준

아. 평가 및 전망

- 금년 상반기 코스타리카 경제는 팬데믹 쇼크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FDI 증가, 지속적인 실업률 완화, 경제활동지수(IMAE) 개선 등 일부 거시경제 지표 개선 달성



- 한편, 대외 경제상황에 의존적인 경향,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소비침체의 악순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이 향후 경제회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코스타리카 정부는 금년 1월 IMF와 17.78억불의 구제금융에 합의하였으며 IMF측은 지난 7.30. 1차 지급분 2.94억불을 지급
 - 금년 IMF 차관 외에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중남미개발은행(CAF) 등으로부터 총 11개 차관(2021년 26.62억불, 2022년 11.02억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 이자지출 감소 효과 기대
- 코스타리카의 2021.6월 공공부채율은 GDP의 70.9%로 2020년 공공부채율(GDP의 67.9%)에 비해 3.0%p 증가하였으나 부채증가 속도는 예년에 비해 느려진 상황
- 금년 상반기 수출, 생산, 경제활동 등 국내 경제상황 개선 및 세계 경제 회복 전망 등을 반영하여 금년 GDP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1.4월) 2.9%에서 1.0%p 높은 3.9%로 상향
- 미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제회복 추세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로 금년 코스타리카의 수출량은 12.4% 증가가 예상되며, 전년도 대비 경기회복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계소비 증가(1.6%)도 예상되며, 수입량도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 속도,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율 상승 등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이며, 대내적으로 재정 조정과 관련된 정책의 의회 승인, 팬데믹 추이, 채무불이행 증가, 기후 변화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5. 통상·투자 환경

가. 개요

-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상 및 투자 환경을 겸비
 - 특히, 양질의 노동력,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부패, 지리적 입지, 양호한 거주 환경, 자유무역지대 등으로 투자 유인
 - 수출 지향적 기업, 관광업 배경 하에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개방적인 시장 환경
- 반면, 코스타리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정부의 핵심적인 공공분야에서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높은 에너지 비용, 항만·도로·상수도 등 기본 인프라의 열악한 환경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코스타리카의 주요 지수

- 부정부패 지수(Transparency Organization) : 2019년 세계 180 국가중 44위
- 기업환경 지수(World Bank) : 2019년 세계 190 국가중 74위
-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 2019년 세계 129 국가중 55위
- 1인당 국민소득(World Bank) : 2018년 11,520 미달러

나. 해외 직접투자(FDI) 정책

- 코스타리카는 대외무역진흥청(PROCOMER), 투자·개발청(CINDE), 관광청(ICT)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 중
-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투자 가능



- 투자제한 분야(괄호 안의 명칭은 관련 기관)
 - 국가독점 사업 : 석유 관련 연료사업(RECOPE), 철도(INCOFER), 에탄올 생산(CNP/FANAL), 상하수도(AyA), 전력배송(ICE, RACSA 등), 통신(ICE), 금융(BCR 등)
 - 전력, 관광, 교통운송업은 투자 제한 분야
 - ① 전력생산 : 최대 30% 민간참여 가능
 - ② 국내선 항공(외국기업 지분 최대 49%),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 관광시설 투자(외국기업 지분 49%)
 - ③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기업에 우선권 부여, 해운운송 면허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 배제 등

-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투자시 혜택
 - 코스타리카는 1990년에 자유무역지대법(법령 7200)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1996년, 1998년, 2010년에 세차례 개정
 - 적용 대상 : ▲수출형 조립공장(법령 7200에 의해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 2016년부터 적용범위 및 혜택 상이) ▲수출형 배급업체 ▲서비스업 ▲관리 업체 ▲과학기술연구 ▲조선소 및 부두운영 ▲수출형 조립공장(법령 8794에 의해 적용되며, 초기 투자금 1,000만불 이상 기업이나 국가전략 분야인 첨단제조업, 의료기기, 전자기기, 바이오산업, 의약품 등에 종사하는 기업)
 - ※ 일정금액 이상의 초기 투자금 등 필요 요건을 갖출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수도권 자유무역지대 내부 : 15만불, 외부 : 200만불
 - 수도권 외 자유무역지대 내부 : 10만불, 외부 : 50만불

다. 법규 체제

- 코스타리카 법규체제는 일반적으로 투명하고, 국제규범과 양립하며, 무역 회사들은 국제회계규정을 준수 중

- 규제기관은 기능별(통신, 금융, 보건, 환경), 위치별(지자체, 항만청)로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커피의 경우 코스타리카 커피협회(ICAFE)와 같은 직능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
- 해외직접투자 관련 법규 사이트
 - 투자·개발청(CINDE) : <http://www.cinde.org/en> (essential info)
 - 대외무역진흥청(PROCOMER) : <http://www.procomer.com> (incentive packages)
 - 보건부 : <https://www.ministeriodesalud.go.cr/> (product registration and import/export)

라. 산업 정책

- 코스타리카는 자유무역지대(FTZ) system, inward-processing system, duty drawback procedure, 관광개발 인센티브 등 4개의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 중
 - inward-processing system : 허가받은 기업에 대해 수입부터 완성품으로 수출까지의 중간재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 관광개발 인센티브 : 관광회사 건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과세 면제 등
-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영업정보 제공, 국산품 사용 같은 규제는 없으며, 체류자격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도 없음
- 코스타리카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며, 사유화 정책이 없음. 최근 은행, 통신, 보험 및 해상운송 등의 분야에서 국유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기업에 개방 중



마.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수입 금지 품목 : ①무기류, 탄약, ②폐타이어, ③화약물질, ④마리화나, 모르핀 등 향정신성 약품
- 수입 제한 품목 :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은 보건부, 농축산부, 환경에너지부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 필요

바. 관세

- 코스타리카는 중미관세 코드협정 및 중미관세 분류체계(SAC)를 1994년부터 채택하여 시행함에 따라, 중미공동시장 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역외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 최고 20%의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
 - 2013.5월 기준으로 93.4%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일화되었고, 자동차,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단일화가 과제
- 최혜국(MFN) 관세는 평균 6.9%로서 농산물(14%)은 비농산물(5.5%)에 비해 관세가 높은 수준
 - 닭고기, 육류, 조류, 소시지, 유제품, 감자, 양파, 설탕, 콩 등의 수입 관세는 35-66%

República de



Costa Rica

VI. 사회와 문화



1. 사회 특징

가. 민주주의, 평화, 인권존중의 오랜 전통 보유

- 코스타리카는 여타 중미국가들과 달리 200여년간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켜온 국가로 개인의 권익 및 인권보호를 중시
 - 오스카 아리아스 산체스(Óscar Arias Sanchez) 대통령은 지난 80년대 내전 상태에 있었던 중미국가들과의 평화협정을 주도하여 1987년 노벨 평화상 수상
- 1979년 미주인권재판소를 유치한 바 있으며, 이는 국제평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힘써 온 코스타리카의 역사를 상징

나. 인구와 국토는 소국이나 1인당 국민소득은 중소득국

- 전통적인 농축산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및 관광산업 육성, 첨단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외국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 지속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과 경쟁력 제고, 인력양성에 중점
 - 전통적으로 교육에 많은 예산(법률에 GDP의 8%를 투자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7.4% 투자)을 투자하고 있으며, 문맹율(4%)도 매우 낮은 수준
 - 양질의 인력과 저렴한 임금이 외국투자 유치의 핵심 요인

다. 지속적 자연보호정책 추진으로 모범적인 환경보존 국가로 발전

- 국토의 25%를 보존지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이 세계 2위(전세계 생물의 5% 서식)
 - 영화 '쥬라기 공원'의 시나리오 무대로 유명

-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한 생태관광과 친환경·청정 농산물 재배를 주요 녹색산업으로 육성
 - 전력생산의 99%가 재생에너지(수력 75%, 지열 13%, 풍력 10% 등)
- 2007년 “자연과 평화”(Peace with Nature) 정책을 발표, 독립 200주년인 2021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하였으며, 2019.2월 2018-50 탈탄소 국가계획 발표

라. 세계 최고 품질의 커피 생산지로 유명

- 코스타리카에서 커피는 18세기 초에 처음으로 경작되기 시작했으며, 커피 농업이 발달한 첫 중미국가인 코스타리카 커피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코스타리카가 식민지 변방에서 중미국가 중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한 경제적 원동력이 되어 ‘황금의 알(Grano de Oro)’이라는 별칭
- 코스타리카의 8대 커피 생산지 중 타라수(Tarrazu) 커피가 세계적으로 유명
 - ※ 코스타리카는 커피 재배의 최적 고도인 1,000~1,600m의 산악지대와 비옥한 화산 토양을 기반으로 우수한 품질의 아라비카(arabica)종 커피를 생산
 - ※ 8대 커피 생산지 : Central Valley, Tres Rios, West Valley, Turrialba, Orosi, Tarrazu, Quacacaste, Brunca
-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바리스타(커피 전문가)는 죽어서 코스타리카에 남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 영국 新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의 지구행복 지수 (Planet Happiness Index) 조사에서 2009년, 2012년, 2016년 세차례 1위 차지



- 2017년 Gallup 행복지수는 덴마크에 이어 2위 기록

※ NEF는 143개국을 대상으로 ①삶의 만족도, ②기대수명, ③탄소지수 등을 종합하여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

-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인 ‘Pura Vida’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걱정 없이 순수한 삶을 사는 국민들의 생활을 반영하여, 인사말로 언제든지 사용 가능

※ 푸라 비다(Pura Vida) : ‘충만한 인생’ 또는 ‘깨끗하고 순수한 삶’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통상 사용

2. 문화·예술

가. 문화적 특징

- 전반적으로 16세기 이래 중남미 지역을 지배해 왔던 스페인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로 인해 여타 유럽문화의 영향도 건재
 - 백인계 중심의 가톨릭 문화가 주류
 - 카리브해 연안에는 19세기 철도건설을 위해 카리브해 도서에서 이주한 흑인들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카리브 문화도 존재
 - 과거 철도건설을 위해 투입된 중국계 이주민들의 후손(현재 4-5세대)도 코스타리카 인구의 1%(5만명)를 차지
 - 일부 지역에서는 마야 문명권의 연장선 하에서 원주민(인디오) 문화가 존재하였으나, 스페인의 점령시 원주민 인구가 많지 않았고, 유럽의 압도적인 영향으로 대부분의 토착문화는 사라진 상태

나. 음악

- 유럽 영향에 의한 음악, 서부의 니코야 반도 지역의 전통적 음악, 동부의 카리브 지역의 아프리카-카리브 음악이 혼재된 특유의 음악 발달
 - 니코야 반도, 과나카스테 지역의 전통음악은 오카리나(Ocarina)등의 악기를 사용한 의식용 음악이며, 카리브 지역은 롬바, 칼립소, 레게 등의 음악이 주류
-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수준급의 교향악단을 보유한 소수의 국가(1940년 국립교향 악단 창설)로서 자국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
 - 중미에서 유일하게 격년제로 국제예술제 개최
 - 음악교육을 통한 빈곤지역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해 2007년 전국에 60여개의 빈곤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설(SINEM 프로젝트)
- 대중음악은 재즈, 메탈, 포크송 등 여러 장르에 걸쳐 다양한 음악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명 밴드로는 말 파이스(Mal Pais)와 에디투스(Editus)가 활약
 - 말 파이스(Mal Pais)는 멤버인 마누엘 오브레곤(Manuel Obregón, 재즈피아니스트, 前문화장관, 前한국공공외교친선대사)이 유명
 - 에디투스(Editus)는 그래미상 3회 수상(2000년 최우수 라틴음악상, 2003년 최우수 외국 음반상, 최우수 열대음악 음반상)
 - Linda Costa Rica, Cana Dulce, Caballito Nicoyano 등이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대중적인 음악

다. 연극·영화

- 연극계에는 1971년 창설된 국립극단(Compañía Nacional de Teatro)을 중심으로 민간극단, 독립극단들이 활동



- 2001년 최초의 상업영화가 제작된 이후 영화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에스테반 라미레스(Esteban Ramírez) 감독의 「카리브(Caribe, 2004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라틴영화제 감독상 수상)」와 에르난 히메네스(Hernan Jimenez) 감독의 「귀환(El Regreso, 2011년, 뉴욕 라틴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이 유명
 - 2012년부터 코스타리카 국제영화제 매년 개최

라. 회화·조각

- 프란시스코 아미게티(Francisco Amighetti)가 민족 회화의 창시자로 존경받고 있으며, 라파 페르난데스(Rafa Fernandez)와 이시드로 콘 윈(Isidro Con Won)이 대표 화가로 활동중
- 코스타리카 조각은 나무와 돌을 이용한 자연주의/사실주의 경향이 강하며, 호르헤 히메네스(Jorge Jimenez, Jimenez Deredia로 알려짐)가 세계적인 조각가로 활동 중
 -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의뢰로 교황청에 Marcelino Champagnat 성인 조각상을 제작(비유럽인으로는 최초)

마. 스포츠

-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같이 축구는 코스타리카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로서 코스타리카는 멕시코, 미국과 함께 북중미 축구의 3대 강호이자 중미에서 실력 있는 국가
 - 축구 국가대표팀은 셀레(Sele)라는 애칭으로 불림
- 국내 리그는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드컵 본선에 5회 진출(1990년, 2002년, 2006년, 2014년, 2018년)하였고, 첫 출전한 1990년 대회에서 16강 진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8강 진출
 - 국내 리그에서는 알라후엘라와 사프리스아 2개 팀이 가장 인기

바. 음식

- 다른 중미지역 음식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미국, 카리브, 남미지역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았고, 쌀, 검은 콩, 신선한 과일, 야채, 육류를 주로 활용한 향이 풍부하고 비교적 순한 맛의 음식이 주종
- 아침으로는 쌀밥과 검은 콩을 섞은 가요 핀토(Gallo Pinto)가 주식이고, 점심 및 저녁으로는 가요 핀토에 삶은 고기(쇠고기, 닭고기)와 야채를 얹은 카사도(Casado)가 일상식
 - 성탄절 저녁의 주메뉴인 타말(Tamal)은 바나나 잎에 옥수수 가루와 돼지고기를 넣어 찐 인기 있는 전통음식
- 주류로는 사탕수수 추출액으로 만든 럼주의 일종인 카시케(Cacique)가 유명하고, 사탕수수액으로 만든 설탕물(Agua Dulce)과 코코넛액으로 만든 피파 프리아(Pipa Fria)도 애용

사. 전통 복식

- 여성의 경우 하의는 폭이 넓고 색이 화려한 긴 치마로 단에는 리본 장식이 있고, 상의는 소매 없는 흰 블라우스로 목과 어깨 부위에는 주름 장식이 넓게 달려 있는 의상
- 남성복장은 다소 단순하며, 목에 수건을 두르고 붉은 허리띠를 맨
- 전통 민속무용 공연시 전통 복식 착용

아. 문화시설

- 코스타리카의 대표 문화시설은 산호세 도심에 위치한 국립극장(Teatro Nacional, 19세기말 건축, 800석) 및 Melico Salazar 극장(1,100석)이



있으며, 국립오디토리움(Auditorio Nacional, 700석)에서도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 코스타리카의 박물관으로는 국립박물관(Museo Nacional, 고고학 유물 및 고가구, 고문서, 역사 전시관 등 보유)이 있으며 그 외에 황금 박물관(Museo de Oro,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황금 공예품 전시), 옥 박물관(Museo de Jade), 국립미술관(Museo de Arte Costarricense) 등이 유명

3. 교육

가. 학제

- 유치원(1년, 무상 의무교육), 초등학교(6년, 무상 의무교육), 중고등학교(인문학교 5년, 기술학교 6년, 첫 3년은 무상 의무교육), 대학교(학사 4-5년)

나. 대학 및 학위

- 국공립대학은 5개(코스타리카대학, 국립대학, 코스타리카공업대학, 국립기술대학, 국립사이버통신대학), 사립대학은 53개, 국제대학은 5개(열대농업교육 연구소, 지구대학, 유엔평화대학, 중미경영대학원, ICAP)
- 학사(bachillerato)는 4년, 이후 1년을 이수하면 고급학사(licenciatura) 학위를 수여하고, 석사(maestría) 과정은 2년이며, 박사(doctorado) 과정은 많지 않은 경향

다. 주요대학

- 코스타리카대학(Universidad de Costa Rica, UCR)
 - 1940년 설립한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코스타리카 주요 정치인, 관료 등은 주로 코스타리카대학 출신
 - 학생수는 39,000여명이고, 136개 학사, 82개 고급학사, 165개 석사, 10개 박사과정 개설
- 코스타리카 공업대학(Instituto Tecnológico de Costa Rica, TEC)
 - 1971년 설립된 코스타리카 최고의 공업대학으로 학생수는 9,000여명
- 국립대학(Universidad Nacional, UNA) : 2013년 중남미대학 랭킹 54위
- 라틴대학(Universidad Latina, ULatina) : 1989년 설립된 코스타리카 최고의 사립대학
- 라틴과학기술대학(Universidad Latinoamericana de Ciencia y Tecnologia, ULACIT) : 1987년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에서 유명한 사립대학
- 중미경영대학원(Instituto Centroamericano de Administración de Empresas, INCAE)
 - 1964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 Financial Times지에 의해 중남미 2위의 경영대학원으로 선정
- 유엔 평화대학(Universidad para la Paz)
 - 1980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국제협약으로 설립된 대학원으로 세계 30여개국(한국 포함)에서 190여명의 학생이 수학



라. 기타 사항

- 코스타리카는 1870년부터 무상의무 초등교육 시행
- 1997년 GDP의 6% 이상을 교육예산에 배정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 법개정을 통해 GDP 8%로 수정
- 문자해득률은 96.2%로 중남미 4위(2013년 유엔 인간개발보고서)
 - 교육의 질은 중남미 1위, 세계 20위

4. 주요 언론 및 방송매체

가. 주요 신문

- La Nación
 - 창간일 : 1946.10월
 - 발행부수 : 100,000부
 - 배포지역 : 코스타리카 전역
 - 보도성향 : 중도보수
 - 참고사항
 -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론지로 평가받는 일간지
 - 주간 경제지 El Financiero 및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자매 일간지 Al Día, La Teja가 자매지(Grupo Nacion 소속)
 - 홈페이지 : www.nacion.com
- La República
 - 창간일 : 1950.11월
 - 발행부수 : 27,000부

- 배포지역 : 코스타리카 전역
- 참고사항 : 경제전문 일간지로 주 독자층은 기업인, 지식인 등 사회 지도층
- 홈페이지 : www.larepublica.net
- Diario Extra
 - 창간일 : 1978.9월
 - 발행부수 : 150,000부
 - 배포지역 : 코스타리카 전역
 - 참고사항 : 판매부수 1위의 일간지로서 스포츠·사건사고 성격이 강해 일반 대중에게 높은 인기
 - 홈페이지 : www.diarioextra.com
- La Prensa Libre(디지털 신문)
 - 창간일 : 1889.6월
 - 참고사항 : 코스타리카에서 발행 중인 일간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디지털 신문으로 새 단장(Grupo Extra 소속)
 - 홈페이지 : www.laprensalibre.cr

나. TV

- Ch7 (Teletica)
 - 개국 : 1960.5월
 - 방송지역 : 코스타리카 전역
 - 참고사항 : Teletica는 코스타리카 최대의 민영 방송사로서 특히 대표 채널인 Ch7를 통해 뉴스, 스포츠, 쇼 등 자체 프로그램 및 중남미, 미주, 유럽에서 수입된 드라마, 시리즈물 등 방영
 - 홈페이지 : www.teletica.com



- Ch2, Ch4, Ch6, Ch11 (Repretel)
 - 개국 : 1994.11월
 - 방송지역 : 코스타리카 전역
 - 참고사항 : Repretel은 중남미 미디어그룹 Albavision 소속 멀티미디어사로, 4개 TV 채널을 통해 드라마, 시리즈물, 아동물, 뉴스 등을 방영
 - 홈페이지 : www.repretel.com

- Ch13 (Sinart)
 - 개국 : 1978.9월
 - 방송지역 : 코스타리카 전역
 - 참고사항 : 문화·교양물·드라마 위주 방영하는 국영방송채널
 - 홈페이지 : www.sinart.go.cr

- Ch15 (Canal UCR)
 - 개국 : 1982.8월
 - 방송지역 : 코스타리카 전역
 - 참고사항 : 국립코스타리카대학(UCR) 방송채널로, 교육·학술 프로그램 위주 제작 방영
 - 홈페이지 : www.canalucr.ucr.ac.cr

다. 라디오

- Radio Monumental(93.5 FM)
 - 방송내용 : 뉴스, 스포츠, 음악
 - 참고사항 : Repretel사가 운영하는 라디오채널
 - 홈페이지 : www.monumental.co.cr

- Aqui Columbia(98.7 FM)
 - 방송내용 : 뉴스, 스포츠
 - 홈페이지 : www.columbia.co.cr

5. 공휴일

- 1.1 신년기념일(Año Nuevo)
- 4.11 리바스 전투기념일(La Batalla De Rivas)
- 4월중 부활절주간(Semana Santa) 성목요일, 성금요일
- 5.1 노동절(Dia Del Trabajo)
- 7.25 과나카스테 합병 기념일(Anexión De Guanacaste)
- 8.2 성모기념일(Día De La Virgen De Los Ángeles)
- 8.15 성모승천일(Día De La Madre)
- 9.15 독립기념일(Día De La Independencia)
- 12.1 군대폐지의 날(Día de la Abolición del Ejército)
- 12.25 성탄절(Navidad)

República de



Costa Rica

V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 우리와 코스타리카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평화, 환경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하에 양국간 및 국제무대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 및 유지
- 코스타리카는 우리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제, IT, 환경,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양국간 행동 지향적 (action-oriented)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 희망
- 코스타리카는 전통적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입장 적극지지

2. 외교관계 연표

- 1962.08.15 외교관계 수립
- 1974.09.04 주코스타리카 상주대사관 개설(대사대리)
- 1981.04.08 주코스타리카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82.11.25 주한국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93.3월 이후 코스타리카 예산 사정상 주한 대사관 잠정 폐쇄
- 1995.04.03 주한국 코스타리카 상주대사관 재개설
- 1999.07.17 주한국 코스타리카 대사관 폐쇄(주일대사관 겸임)
- 2002.03.09 주한국 코스타리카 대사관 재개설

【한국】

- 1981.04.08 이용훈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82.10.14 김재훈 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86.03.04 정해헌 3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89.03.02 김창근 4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2.09.29 이정수 5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5.09.13 김승영 6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8.10.08 김영식 7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1.10.10 신승철 8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3.07.15 임창순 9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6.10.25 조병립 10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9.03.10 권태면 11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2.04.12 전홍조 1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5.05.06 전영욱 13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8.07.04 윤찬식 14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21.07.29 김진해 15대 대사 신임장 제정

【코스타리카】

- 1982.11.25 Eduardo Con Sanchun 초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1987.03.18 Edgar Sanchez Matarrita 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88.04.28 Javier Sancho Bonilla 3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0.10.28 Rafael Ángel Gonzalez 4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5.05.01 Yuk Man Tang Chen 5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8.09.24 Ricardo Alberto Sequeira Ramírez 6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3.02.12 Pedro Goyenaga 7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7.10.16 Fernando Borbón 8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1.11.25 Manuel López 9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6.01.15 Rodolfo Solano 10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21.02.17 Alejandro José Rodríguez Zamora 11대 대사 신임장 제정

3. 주요 인사 교류 현황

【방문】

- 1977.03 김종필 특사
- 1978.05 이호 대한적십자 총재(Carazo 대통령 취임식 특사)
- 1980.11 박동진 특사
- 1982.05 이범석 대통령 비서실장(Monge 대통령 취임식 특사)
- 1983.12 이영호 특사(체육부장관)
- 1984.03 무역투자사절단(단장 : 한재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부회장)

- 1986.05 김중호 국회예결위 위원장(Arias 대통령 취임식 특사)
- 1988.08 김재순 국회 의장
- 1990.05 조순 부총리(Calderon 대통령 취임식 특사)
- 1993.01 박준규 국회 의장
- 1994.01 한-코 의원친선협회 사절단(단장: 이영문 의원)
- 1994.05 황명수 의원(Figueres 대통령 취임식 특사)
- 1994.08 서청원 정무 제1장관(Colombia 대통령 취임식 특사)
- 1994.10 정몽준 대한축구협 회장(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
- 1995.02 박관용 대통령 특사
- 1995.11 이복형 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 집행위원
- 1998.12 조용하 중남미 국장(지역국장회의 참석)
- 1999.09 조규형 중남미 국장(한·중미 대화협의체 회의 참석)
- 2000.02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2000.06 박수길 전 UN대사(2010 여수해양박람회 유치 활동)
- 2001.12 김종하 국회 부의장
- 2002.05 한승주 대통령 특사(Pacheco 대통령 취임식)
- 2002.08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2002.11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사절단(단장: 이정일 의원)
- 2003.07 김석현 KOICA 총재
- 2003.09 오영교 KOTRA 사장



- 2003.11 한명숙 환경부 장관
- 2004.05 김재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2004.08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2005.07 오명 과기부 장관
- 2005.09 **노무현 대통령(국빈 방문)**
- 2006.05 전윤철 대통령 특사(Arias 대통령 취임식)
- 2006.05 김원웅 국회윤리위원회 위원장
- 2007.01 김원웅 대통령 특사(Ortega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 2007.01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단(단장: 박계동 의원)
- 2007.06 한병길 외교부 중남미 국장(제1차 한·코 정책협의회)
- 2007.07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사절단(단장: 김항경 전외교차관)
- 2009.03 권태균 조달청장(전자조달 협력사업 관련)
- 2009.09 두정수 외교부 중남미국장(제2차 한·코 정책협의회)
- 2009.10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2010.01 이윤성 국회 부의장
- 2010.05 김형오 국회 의장
- 2010.12 이만의 환경부 장관
- 2011.01 한·코 의원친선협회(이종구, 안홍준, 유일호 의원)
- 2011.10 박석환 제1외교차관

- 2011.12 정태용 GGGI 부소장
- 2011.12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2012.03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
- 2012.04 서필연 행안부 1차관
- 2012.06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제3차 한·코 정책협의회)
- 2012.09 이성기 산업인력공단 이사
- 2012.11 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치안협력사절단)
- 2012.11 김성태 정보화진흥원장(중남미 전자정부 장관급회의)
- 2013.01 국회 외통위 대표단(정문헌, 유인태 의원)
- 2013.01 국회 예결위 대표단(김재경 의원 등 4명)
- 2013.01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2013.01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2013.03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 2013.09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 2013.09 정연만 환경부 차관(중남미 그린카라반)
- 2014.03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
- 2014.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단(신계륜, 김성태, 홍영표 의원)
- 2014.03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2014.05 정우택 대통령 특사(Solís 대통령 취임식)
- 2014.08 이석현 국회부의장(진영 의원 등 3명)



- 2015.01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 2015.07 김성곤 한-코 의원친선협회 회장
- 2015.08 윤병세 외교부장관(제7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 2015.09 정의화 국회 의장
- 2016.08 국회 한-중남미협력포럼 방문단(단장: 최경환 의원)
- 2016.0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단장: 나경원 의원)
- 2016.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단장: 심재권 의원/국정감사)
- 2017.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단장: 주광덕 의원)
- 2017.05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2017.07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한-중미 공공행정포럼)
- 2018.05 조정식 대통령 특사(Alvarado 대통령 취임식)
- 2018.07 국회 한-중남미협력포럼(단장: 박병석 의원)
- 2018.0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 2018.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단장 : 강석호 위원장)
- 2019.01 국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단장: 신상진 의원)
- 2019.06 충북대 총장
- 2019.07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13명(국회 의원 1명), 산림청장
- 2019.11 이태호 외교부 2차관
KAIST 글로벌사업화센터장(최문기 전장관)
- 2021.04 최중건 외교부 1차관

【방 한】

- 1971.06 Gonzalo J. Facio 외교부 장관
- 1976.06 Gonzalo Facio 외교부 장관
- 1977.08 Elias Soley Soler 국회 의장
- 1979.08 Rafael Ángel Calderon 외교부 장관
- 1979.11 Rodrigo Altman 제1부통령
- 1981.10 **Rodrigo Carazo Odio 대통령**
- 1982.03 Armando Arauz Aguilar 제2부통령 당선자
- 1983.09 Armando Aruz Aquilar 제2부통령
- 1984.01 Mario Carvajal Herrera 수출투자성 장관
- 1984.05 Javier Sancho Bonilla 대통령실 비서실장
- 1984.08 Milton Ariaz 전내무부 장관(농촌지도자연수단장)
- 1984.12 Carlos Gutiérrez 외교부 장관
- 1985.05 **Luis Alberto Monge 대통령(공식 방한)**
- 1986.03 Guillermo Vargas 국회 의장
- 1987.04 Rosemary Karpinsky 국회 의장
- 1988.02 Miguel Blanco 대법원장(제 13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993.05 Luis Alberto Monge 전대통령
- 1994.09 Óscar Arias 전대통령
- 1994.11 Fernando Naranjo 외교부 장관



- 1994.11 Roberto Dobles 과기부 장관
- 1995.04 Arnoldo Mora 문화·체육부 장관
- 1995.07 Óscar Arias 전대통령
- 1995.10 Rodrigo Oreamuno 제1부통령
- 1998.07 Bernd Niehaus 외교부 차관
- 1999.02 Óscar Arias 전대통령
- 2001.04 **Miguel Ángel Rodríguez 대통령(국민 방한)**
- 2002.05 Miguel Rodríguez 전대통령
- 2002.06 Roberto Tovar 외교부 장관
- 2004.09 Fernando Gutiérrez 과기부 장관
- 2006.11 Edgar Ugalde 외교부 차관
- 2007.04 Jorge Woodbridge 경제산업부 차관
- 2007.06 Pedro Quiros 전력통신공사(ICE) 사장
- 2007.08 Osvaldo Pandolfo 체육부 차관
- 2007.09 Roberto Dobles 환경에너지부 장관
- 2008.10 Rodrigo Carazo Odio 전대통령
- 2009.01 Pedro Quiros 전력통신공사 회장
- 2009.01 Alicia Avendano 전자정부추진위 부위원장
- 2009.04 María Lourdes 중미카리브지역영상진흥기금(Cinergia) 대표
- 2009.10 Francisco Pacheco 국회 의장

- 2009.11 Eduardo Sibaja 경제부 장관
Roberto Gallardo 기획부 장관
- 2010.01 Bruno Stagno 외교부 장관
- 2010.05 Leonardo Garnier 교육부 장관
- 2010.08 Agustin Barquero 출입국관리청 부청장
- 2010.09 Alexander Cuadra 재무부 차관
- 2010.09 Rene Castro 외교부 장관
- 2010.11 Clotilde Fonseca 과학기술부 장관
- 2010.11 Anabel Gonzalez 대외무역부 장관
- 2011.03 Mario Zamora 치안부 차관
- 2011.04 Adriana Collado 국립극장장
Gonzalo Ramirez 산호세 부시장
- 2011.05 Manuel Obregón 문화부 장관 및 Ivan Rodriguez 문화부 차관
- 2011.05 Alfio Piva 부통령
- 2011.06 Freddy Montero 출입국관리청 부청장
- 2012.03 Gaudy Solorzano 지방자치부 차관
- 2012.04 Florencia Urbina 국립미술관장
- 2012.04 Roberto Gallardo 경제정책기획부 장관
- 2012.07 Celso Gamboa 치안부 차관
- 2012.08 **Laura Chinchilla Miranda 대통령**



- 2012.09 Gonzalo Ramírez 산호세 부시장
- 2012.09 Rene Castro 환경에너지부 장관
- 2012.09 Rowland Espinoza 통신부 차관
- 2012.10 Alicia Fournier 코-한 의원친선협회장
- 2012.10 René Castro 환경에너지부 장관
- 2012.10 Keylor Rojas 과기부 차관
- 2012.11 Xinia Chaves 농업부 차관
- 2013.06 René Castro 환경에너지부 장관
- 2013.06 Lilliana Rivera 법무부 차관
- 2013.09 Fernando Salazar 외교부 차관
- 2013.09 Alejandro Cruz 과기부 장관
- 2013.10 Zetty Valverde 선거관리위원회 재판관
- 2013.10 Alejandro Cruz 과기부 장관
- 2013.11 Luis Liberman 제2부통령
- 2014.06 Patricia Madrigal 환경부 차관
- 2014.07 Manuel Gonzalez Sanz 외교부 장관
- 2014.09 Gina Paniagua 농업부 차관
- 2014.09 Eduardo Trejos 외교부 차관
- 2014.10 Sandra Garcia 산호세 시장
- 2014.11 Edgar Gutiérrez 환경에너지부 장관

- 2015.03 Alejandro Solano 외교부 차관
- 2015.03 Gisela Kopper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 2015.03 Alexander Mora 대외무역부 장관
- 2015.03 Olivier Castro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총재
- 2015.05 Sonia Mora 교육부 장관
- 2015.07 Rosendo Pujol 주택부 장관
- 2015.09 Jhon Fonseca 대외무역부 차관
- 2015.10 Marcelo Jenkins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 2015.11 Carlos Segnini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 2016.03 Jhon Fonseca 대외무역부 차관
- 2016.05 Marcelo Jenkins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 2016.09 Ottón Solís 의원
- 2016.09 María Fullmen 치안부 차관
- 2016.10 **Luis Guillermo Solís 대통령**
- 2017.06 Carlos Roberto Mora 경제산업통상부 차관
- 2017.08 Manuel Gonzalez 외교부 장관
- 2017.09 Eduardo Estrada 통신부 차관
- 2017.10 Alexander Mora 대외무역부 장관
- 2017.10 Sanders Pacheco 과학기술통신부 차관
- 2018.02 Alexander Mora 대외무역부 장관



- 2018.08 Adrián Salazar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 2018.10 Claudia Dobles 알바라도 대통령 영부인
- 2019.05 Patricio Morera 주택부 차관, Juan Carlos Gómez 관세청장
- 2019.08 Karine Niño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 2019.09 Ottón Solís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코스타리카 이사, Elizabeth Briceño 철도청장
- 2019.10 Karine Niño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Elizabeth Briceño 철도청장
- 2019.11 Edwin Estrada 과학기술통신부 차관, Wagner A. Jimenez 국회 과학기술위원장
- 2020.11 Adriana Bolaños 외교부 양자담당 차관
- 2021.03 Rodolfo Solano 외교부 장관
- 2021.10 Elizabeth Briceño 철도청장
- 2021.10 Adriana Bolaños 외교부 양자담당 차관(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계기)
- 2021.11 **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국빈방한)**

4. 對한반도 정책

- 2016.10월 루이스 기에르모 솔리스 대통령 방한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관계 설정
-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협력 관계 강화 희망
 - 2018.5월 출범한 알바라도 정부는 우리와의 행동지향적 파트너 관계 설정을 지속 요청하고 포스트 코로나 협력(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적극 희망
 - 전직 주한대사인 솔라노 외교장관은 2020.2월 취임 후 우리와의 협력 관계 중시 및 적극 추진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성명 발표
 - 북한의 핵실험 관련 규탄성명 발표(16.1월, 16.9월, 17.9월)
 - 미사일 발사시 규탄성명(16.2·4·6·8월, 17.2·4·8월) 발표
 - 국회 명의 결의안 채택(18.8월)
-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적극 지지
 - 2020.10월 솔라노 외교장관 서한, 2021.4월 알바라도 대통령 우리 제1차관 접견시 등 언급, 2021.9월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 표명



5. 협정 체결 현황

- 문화협정(1966.7월 체결, 1971.7.4. 발효)
- 무역협정(1974.3월 체결, 1975.6.27 발효)
- 과학기술협력협정(1979.8월 체결, 1981.9.18 발효)
- 사증면제협정(1981.9월 체결, 1981.10.22 발효)
- 투자보장협정(2000.8.11 체결, 2002.8.26 발효)
- 봉사단파견협정(2007.5.3 체결, 2011.03.25 발효)
- 조세정보교환협정(2016.10.12 체결, 2018.11.13. 발표)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2018.2.21 체결, 2019.11.1 한-코스타리카간 발효, 2021.3.1 한-중미 FTA 전체 발효)

‘18.5월 코스타리카 신정부 출범후 MOU (18건)

- ‘18.08.22 기술협력 : 석유관리원(K-Petro)-코스타리카 정유공사(RECOPE)
- ‘18.09.12 학술교류협력 : 한중남미협회-중남미사회과학원(FLACSO)
- ‘19.01.11 학술교류 : 서울시립대-코스타리카대학(UCR)
- ‘19.04.02 지역/도시 개발·주택 분야 협력 : 국토연구원-주택도심연구원(INVU)
- ‘19.05.17 생체간이식 기술 전수 : 서울아산병원-Calderon Guardia 병원
- ‘19.06.04 학술교류 : 충북대-코스타리카대학(UCR)
- ‘19.06.04 학술교류 : 충북대-평화대학(UPEACE)
- ‘19.07.16 해양생물자원 협력 : 국립해양생물자원관(MABIK)-생물다양성연구소(INBio)
- ‘19.07.22 학술교류 : 한국생산성본부-중남미사회과학원(FLACSO)

- '19.07.22 스마트시티협력 : 한국CCTV협회-ICT협회(CAMTIC)
- '19.07.29 산림협력 : 산림청-환경에너지부(MINAE)
- '19.07.12 사회적 경제교류 :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경제개발지방정부협의회(IFAM)
- '19.09.02 철도협력 : 한국철도공사(KORAIL)-KAIST GCC-철도청(INCOFER)
- '19.09.06 철도협력 : 한국철도시설공단(KRNA)-철도청(INCOFER)
- '19.10.31 공공행정협력 : 한국행정연구원(KIPA)-중미공공행정연구원(ICAP)
- '20.02.03 지질, 국토이용 협력 : 국토연구원(KRIHS)-주택부(MIVHA)
- '20.07.08 공공행정협력 : 행정안전부-중미공공행정원(ICAP)
- '20.12.07 학술교류협력 : 외교안보연구소(IFANS)-중남미사회과학원(FLACSO)

6. 정무 관계

가. 정상회담 현황

- 1981.10 Rodrigo Carazo Odio 대통령 방한, 전두환 대통령과 회담
- 1985.05 Luis Alberto Monge 대통령 방한, 전두환 대통령과 회담
- 1996.09 김영삼 대통령 과테말라 방문(한-SICA 정상회담 계기), José María Figueres 대통령과 회담
- 2001.04 Miguel Ángel Rodríguez 대통령 방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 2005.09 노무현 대통령 국민방문, Abel Pacheco 대통령과 회담
- 2010.06 이명박 대통령 파나마 방문(한-SICA 정상회담 계기), Laura Chinchilla Miranda 대통령과 회담



- 2012.08 Laura Chinchilla Miranda 대통령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 2016.10 Luis Guillermo Solís 대통령 방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
- 2021.01 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
- 2021.05 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 P4G 화상 정상회의(서울) 참석
- 2021.06 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 제4차 한-SICA 화상 정상회의(산호세) 참석
- 2021.11 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 국빈방한

나. 한-코 정책협의회

- 2007.06 제1차 정책협의회 산호세 개최(한병길 중남미국장)
 - 2009.09 제2차 정책협의회 산호세 개최(두정수 중남미국장)
 - 2012.06 제3차 정책협의회 산호세 개최(김규현 차관보)
 - 2021.04 제4차 정책협의회 산호세 개최(최종건 제1차관)
- ※ 1차관 방문 계기 제13차 한-SICA 차관급 대화 개최

다. 한-코 의원친선협회

- 1988.10 우리 국회 한-코 의원친선협회 결성
- 1991.04 코스타리카 의회 코-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 2002.03 한-코 의원친선협회 설립을 위한 기본약정 체결
※ 조부영 한-코 의원친선협회장 및 Walter Muñoz 외교위원회 위원장
- 2011.01 한-코 의원친선협회(이종구, 안홍준, 유일호 의원) 방문
- 2012.10 Alicia Fournier 코-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 2015.10 José Alfaro 코-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 2016.8월 국회 한-중남미협력포럼 방문단(단장 : 최경환 의원) 방문
- 2018.05 코스타리카 의회 개원 후 국별 친선협회 결성
- 2019.01 한-코 의원친선협회 방문(단장: 신상진 의원)

【한-코 의원친선협회 한국측 회원(‘21.10월 현재 총 7명)】

성 명	정당	비고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회장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회장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부회장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회원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회원
김태흠 의원	국민의힘	회원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회원



【한-코 의원친선협회 코측 회원('21.10월 현재 총 16명)】

성 명	정당	비고
Karine Niño Gutiérrez	PLN(국민해방당)	회장 (외교위원장)
Nilesen Pérez Pérez	PAC(시민행동당)	간사
Erick Rodriguez Steller	무소속	회원
Mileidy Alvarado Arias	PRN(국가부흥당)	회원
Carmen Chan Mora	BNR(신공화당, 무소속블록)	회원
Harllan Hoepelman Páez	BNR(신공화당, 무소속블록)	회원
Nidia Céspedes Cisneros	BNR(신공화당, 무소속블록)	회원
Xiomara Rodríguez Hernández	PRN(국가부흥당)	회원
Carlos Ricardo Benavides Jiménez	PLN(국민해방당)	회원
Luis Fernando Chacon Monge	PLN(국민해방당)	회원
María Vita Monge Granados	PUSC(기독교사회통합당)	회원
Otto Roberto Vargas Víquez	PRSC(기독교사회공화당)	회원
Walter Muñoz Cespedes	PIN(국가통합당)	회원
Dragos Dolanescu Valenciano	PRSC(기독교사회공화당)	회원
Welmer Ramos Gonzales	PAC(시민행동당)	회원
Silvia Hernández Sánchez	PLN(국민해방당)	회원 (의회의장)

7. 경제·통상·개발협력 관계

가. 양국교역

-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수출 3.3억불, 수입 2.9억불 등 총 6.3억불로 최고치 교역액 기록

- 2020년 양국 교역규모는 2.67억불(수출 1.11억불, 수입 1.56억불) 기록
- 코스타리카 수출진흥청(Procomer) 한국지사 개소('16.10월), 우리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절차 완료(2021.1월), 2021.3월 한-중미 FTA 발효(한-코간 '19.11.1 발효)로 교역촉진 기대
 - 다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전반적인 교역규모 축소

< 한·코스타리카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출	금액	337	232	243	245	217	168	135	119	111
	증가율	(5.5)	(△31.2)	(4.5)	(1.1)	(△11.5)	(△22.4)	(△19.9)	(△11.5)	(△6.9)
수입	금액	293	267	291	150	133	139	207	225	156
	증가율	(58.9)	(△8.8)	(8.8)	(△48.5)	(△11.2)	(4.6)	(48.6)	(8.9)	(△30.7)
교역		630	499	534	395	350	307	342	344	267
증가율		(25.0)	(△20.8)	(7.0)	(△26.0)	(△11.4)	(△12.3)	(11.4)	(0.6)	(△22.3)
무역수지		44	-35	-48	95	84	29	-72	-106	-45

< 2021.9월 한·코스타리카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비중 %), MTI 4단위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
1	승용차(7411)	50	34	250	선박(7461)	247	65	-
2	의약품(2262)	15	10	72	의료용기기(7331)	42	11	18
3	합성수지(2140)	11	8	130	당류(0518)	30	8	-22
4	기타정밀화학제품 (2290)	6	4	210	의료용전자기기 (8147)	10	3	12
5	연선및와이어로프 (6143)	6	4	174	커피류(0151)	8	2	-23
6	화물자동차(7412)	5	3	35	집적회로반도체 (8311)	7	2	564
7	자동차부품(7420)	4	3	33	연결부품(8342)	4	1	32
8	알루미늄과/스크랩 (6211)	4	3	44	과실류(0116)	4	1	797
9	전기자동차(7414)	3	2	90	의료위생용품 (9509)	3	1	15
10	음료	3	2	48	꿀및로얄제리 (0242)	3	1	-36
	10대품목 합	107	74		10대품목 합	358	94	
	전체	145		78	전체	381		200

나. 투자 현황

- 1980년대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투자는 섬유분야를 중심으로 1989년말 진출 한국기업은 총 12개(3,500여명 고용)이었으나, 2021.10월 2개(대우 버스 조립공장, 세아방적)의 투자 기업만 존치
 - 1990년대 중반부터 섬유산업 공장이 임금 상승으로 인근국가로 이전
 - 대우버스 조립공장이 유일한 투자로 존재하다가, 2013년 세아 방적 공장은 제1공장에 5천만 불을 투자하여 결정 및 2015.4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제2공장에 5천만불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며, 5천만 불 규모의 제3공장 증설 협의 진행 중

- 2020년말 기준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투자는 누계기준 63건 1.5억불 수준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누계
신고 금액	24	0	0	0	0	0	0	50	152
신고 건수	2	2	0	5	0	2	2	1	63

< 코스타리카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천불)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누계
신고 금액	0	0	0	0	0	0	0	203	914
신고 건수	0	0	0	0	0	0	0	2	8

다. 개발협력

-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 추세에 맞게 최저개발국 및 하위중소소득국 위주로 ODA를 실시하는 한편, 중남미 지역의 여건에 맞는 ODA도 지속 확대 중
- 우리 정부는 코스타리카가 중소득국으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부터는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기술협력사업을 주로 시행해 오다가, 2021.3월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상의 이유로 WFK(Worlds Friends Korea) 사무실 폐쇄
 - 2019년 對코스타리카 ODA는 약 270만불로 2015년 대비 4배 증가
 - 2020년 50만불 상당 인도적 무상지원(KF-94 마스크) 2차례 실시



- 2021년 369만불 지원 예정

※ ICT, 전자정부, 철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등 지원

※ 코스타리카는 2021.5.25. OECD의 38번째 회원국(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에 이어 4번째)으로 가입

- 개발협력을 위한 1987-2020년간 지원 실적 : 총 1,989만불 지원(전액 무상 원조)

- 전체 수원국 중 72위, 중남미 국가중 12위

(자료: 한국 ODA 통합정보포털, 단위: 백만불)

연도	'87-'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지원액	7.40	0.19	0.23	0.25	0.69	1.60	0.59	0.90	1.84	1.04	2.71	2.45	19.89

○ 주요 ODA 사업

사업 유형	사업명	시행기관
프로젝트	개도국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운영('20-'21/2.09억)	과기부
	국가표준기관 법정계량 역량강화 사업('20-'24/35.7억)	KOICA
개발 건설 팅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ITC 코스타리카 조달 시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지원('20-'21/ 5.06억)	기획재정부
	KSP-IDB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혁신(STI) 기관설립 전략수립('21-'22/4.96억)	기획재정부
	철도 마스터 플랜 수립('21/14억)	국토교통부
	산호세 광역도시철도 TOD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21/8억)	국토교통부
	기술혁신 기반 창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19-'25/49.5억)	KOICA
학위과정	학위과정연수(석사) -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19-'23) - (1차) 한국과학기술원 1명	KOICA

라. 코로나19 관련 보건협력

- 외교장관간 화상 통화(‘20.4월) : ①보건 전문가간 화상회의 개최 ②양국 연구 기관간 연구개발 분야 상호협력 ③진단키트 지원 ④양국 체류 중인 국민들의 필요에 부응한 적극 지원 등 협의
- 방역 전문가간 화상회의 개최 : ①연대 세브란스 병원-세계은행-코의료진(‘20.4월) ②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합동 웹세미나(‘20.4월) ③한-중남미간 웹세미나(‘20.4/5월) ④고대병원, 아산병원-사회보장청(CCSS) 의료진간 화상 세미나(‘20.7월)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통한 진단키트 제공 : ①‘20.4월 26,000건 검사 분량 진단키트 제공(중미 8개국 대상 총 210만불 상당 한국산 진단키트 182,000건 검사 분량) ②‘20.4월 지원 당시 추출키트 부재로 진단키트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코-CABEI간 추가협의로 ‘20.7월 CABEI 추가 지원(17,760건 추출키트)
- 우리정부, 코스타리카 한인사회, KOICA 등 지원
 - KF94 마스크 30만장 총 50만불 규모 지원 등 수차례 지원
 - 한인사회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자체 지원, 현금 중앙정부 지원
 - 코이카의 사회보장청(CCSS)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칼럼('20.6.29)

- 코스타리카 주요일간지(la Nacion)는 “행복하기 위해서(Para ser felices)”제하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방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 게재
 - 기고자 : Velia Govaere 칼럼니스트로 방송통신대학(UNED) 교수이자 前경제산업부(MEIC) 차관으로 KSP 사업으로 방한한 친한인사이며 Oscar Arias, Laura Chinchilla 전대통령의 연설문 비서관 역임
 - 한국은 코로나19 관련 위생 모범국으로서 대규모 검사, 자동시스템, 치료, 역학관계 추적 및 마스크 의무사용 등을 시행
 - 한국은 위기상황 발생 시,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DNA로 능숙. 신속히 대응해왔으며, 코로나19 상황도 기업 및 학교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의료, 사회, 경제, 재정분야 등 총체적 전략(estrategia holistica)으로 접근
 - 현재 회복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코스타리카는 한국의 신속한 대처를 배워야할 때임.

8. 환경·녹색성장 협력

가. 환경협력

- 한국과 코스타리카간 환경협력을 위해 2010.12월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고 생물다양성, 자원 등 11개 분야협력 추진 합의
 - 환경협력 MOU 협력 11개 분야 : 생물다양성과 자원, 대기오염 저감,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자연보호, 토양과 지하수 관리, 폐기물 관리, 수질관리, 하수처리, 환경교육과 인식의 제고, 환경평가
- 코스타리카는 2019.2월 탈탄소국가계획(2018-2050)*을 발표하였고 우리는 2020.12월 Net-zero 2050을 발표하여 양국간 그린 뉴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
 - 코스타리카는 2050년까지 3D경제(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권화) 구축을 통해 경제구조 다변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코스타리카는 탈탄소국가계획 발표시 10대분야 및 8대 횡단전략을 제시하고, 2021.2월 시작단계(2018-2022)의 90% 달성 선언

【 10대 분야 및 분야별 핵심과제 】

- ① 공공교통 차량(2035년까지 공공버스 및 택시의 70%를 탄소배출 제로달성(전기화) 및 광역수도권내 전기열차(TRP) 도입)
- ② 민간 경차량(2035년까지 민간 경차량의 25%를 전기차량으로 대체)
- ③ 화물운송 차량(205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20% 감축)
- ④ 재생에너지 투입을 통한 전력공급 및 전기가격 인하(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달성)
- ⑤ 주거/상가/공공 건물 및 건축(2030년까지 100% 저배출 시스템 달성)
- ⑥ 산업부문(2030년 순환 경제 모형 확보 등 현대화)
- ⑦ 폐기물(2022까지 메탄가스 감소를 위한 전략수립, 2030까지 쓰레기 관리, 개선을 위한 시민/기업 문화 구축 등 통합관리)
- ⑧ 농업(2050년까지 저오염, 저탄소 농업 구현 등 고효율 농업 달성)
- ⑨ 축산업(2050년까지 지속가능 선진기술 활용 기술도입 / 2015-34 저탄소 축산전략과 병행)
- ⑩ 산림(2030년까지 산림비율을 60%(현재 55% 수준)까지 확대, 수도권 내 녹지비율 확대)

【 8대 횡단전략 】

- ① 포용, 인권존중, 성평등 원칙 추구
- ②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
- ③ 조세 구조개편 및 이를 통한 탈탄소 공공정책과의 연계
- ④ 탈탄소 경제 구현을 위한 연관 투자 유치
- ⑤ 디지털 사회 및 지식기반 경제전략 추진
- ⑥ 탈탄소 경제에 부응한 노동 전략 마련
- ⑦ 투명성 확보
- ⑧ 탈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문화 전략



나. 바이오 협력

- 우리 정부는 2005.9월 노무현 대통령 방문 후속조치 일환으로 2008.2월에 한국-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KCBRC : Korea-Costa Rica Biomaterial Research Center)를 산호세에 설치하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소속 박사 1명이 파견 근무 중
 - 코스타리카는 생명공학 연구 클러스터를 조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으로 생명공학 분야를 대안으로 추진 중
 - KCBRC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신약개발 등 상용화 추진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과 바이오산업 협력의 전략적 거점화 추진
- 구체적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과 코스타리카 생물다양성 연구소(INBio)는 코스타리카의 다양한 식물자원과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의 강점을 결합하여 식물공동 연구사업 추진 중
 - KRIBB-INBio간 2008-2016년간 코스타리카 식물로부터 추출물 제작 후 활성분석을 진행 중이며, 협력 프로젝트로 항염증 치료제 및 헬리코박터균 치료제 개발, 미생물자원 확보 및 신종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다. 폐기물 처리 협력

- 폐기물 관리, 하수처리, 대기오염 분야에서도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
 - 2013.1월 한국환경공단-코스타리카 수도권지자체연합(FEMETROM)과 협력 MOU 체결, 폐기물의 에너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시행
 - 2013.9월 한-코 폐기물관리 협력 MOU 체결, 한국은 코스타리카의 폐기물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2014년-2015년간 시행, 2015.4월 최종 보고회 개최를 통해 코스타리카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관련 정책, 노하우 및 기술 등 공유

- 코스타리카 정부는 2019년 탈탄소국가계획 10대전략 중의 하나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지정하고 한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여 관련 세미나 개최, 전문가 방문 등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로 무산
- 향후 코로나19 확산 동향 등을 보아가며 쓰레기 폐기물 매립 관리에 있어 드론 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매립, 에너지화 정책 등에 관해 협력 모색 필요

라. 산림협력

- 2011.9월 한국국립산림과학원(KFRI)과 코스타리카 국제열대농업센터(CATIE)간 협력 MOU 체결, 2013-2015년간 산림생태계경영, 산림생태계서비스직불제, 열대목질바이오에너지개발, 열대수종증대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공동연구 진행
- 2019.7월 우리 산림청장 방문 및 코스타리카와 환경에너지부(MINAE)와 산림협력 MOU 체결
 - ※ CATIE-한국농촌경제연구원간 협력 MOU 체결(2015.1.9)을 통해 코스타리카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임농(Agroforestry) 복합경영 분야에서 협력

9. IT·전자정부 협력

코측의 디지털 전략 동향

- 디지털 정부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CCIT)
 - 디지털 정부 추진 전략 작성 및 추진
 - 디지털서명·전자ID, 법적 장치, 정책, 사이버보안, 상호운용성, 프로젝트 및 서비스 등

□ **코측의 디지털 전략(2018년 5대 분야 6대 전략 발표)**

- 디지털 정부와 직접연관 : ①Pura Vida Digital(민원포털) ②스마트 코스 타리카
- 생산·기업계 참여 : ③비즈니스 전환 4.0
- 공공·민간 부문에서 혁신 생태계 개발 및 경쟁력 함양 : ④혁신사회 개발
- 공공기관·법적 틀 차원에서 디지털 발전, 혁신을 추진 : ⑤긱거버넌스
- 정보 통신 : ⑥코스타리카 네트워크
 - ※ Pura Vida Digital은 반폭력, 보건, 증명서, 기업, 보건·연금 등 5개 분야 10개 서비스로 시작('19.11월 서비스 시작)

□ **디지털 정부 고위급 위원회 창설(디지털 아젠다 협의), 전자보건관리시스템(EDUS) 도입**

- 사회보장청(CCSS),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 국가적 통합관리를 위해 CCSS 산하 진단검사 실시 실험실 115개중 82개를 통합, 관리

- **(제도적 기반)** 한-코 과학기술협력협정(1979), 노무현 대통령 방문시 우리 정통부-코 과기부간 한-코 IT 분야 협력약정(2005), 한-코 전자정부 조달협력 협력약정(2008), 한-코 과학기술혁신 및 창조경제 협력약정(2016), 한-코 전자정부 협력약정(2017), 한-코 ICT분야 투자협력약정(2018), 한-코 스마트시티 협력약정(2019)
- **(디지털조달시스템(SICOP) 구축 지원)** 코스타리카는 2010년 우리 “나라장터(KONEPS)”를 모델로 조달청과 삼성SDA 지원 하에 Mer-Link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5년 SICOP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 중
 - 2019년 코스타리카 감사원(CGR)은 2019.12월 기준 공공기관의 85%가 SICOP을 사용 중이며 모든 공공기관이 SICOP을 이용하면 GDP의 6.4%의 비용절감 가능함을 발표
 - 히메네스 의회 과기위원장은 SICOP이 잘 정착한 성공 사례이며 확산 필요성 언급

- (정보접근센터(IAC) 개소 및 운영) 2014.11월 알라후엘라(Alajuela)시 국립기술대학(UTN) 별관에 한-코 정보접근센터(IAC) 설립
 - 모바일 라운지, 스마트 테마존(컴퓨터 및 모바일패드), 비디오 컨퍼런스, 정보화교육장 운영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ODA 자금을 활용하여 정기적 유지 보수 등 지원
- (코스타리카 과학기술정보시스템, SINCY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코스타리카와 협력 하에 SINCYT 구축
 - 2016.10월 솔리스 전대통령 방한 후속사업으로, KISTI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과학기술정보관리 분야 국제사업의 첫 해외진출 성과
 - 2018.8월 시범운영 행사에 알바라도 대통령 등 주요인사 참석
 - 2020.11월 KISTI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여 시스템 유지 협의
- 한국정보정보화진흥원(NIA)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 사이버 보안 워크숍(2019.4월)
 - 사이버 보안 대응 애로점 청취 및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 기술 공유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장소 제공 등 공동 개최
- 2020.2월 행안부 기조실장 방문 계기 과기통신부(MICITT) 차관 면담시 2019.7월 완료된 한-코 전자정부 협력약정 갱신 추진에 합의 및 현재 문안 교섭중
 - 코측 차관은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등 한국정부의 경험공유 희망
 - 한편, 행안부는 전자정부 협력사업으로 2018년, 2020년 모두 과학기술 통신부(MICITT) 인사 초청
- 최근 코스타리카 핵심인사 방한을 통한 협력 확대
 - 히메네스 과학기술위원장은 2019.11월 카이스트 초청으로 글로벌 혁신 포럼 참석



- 볼라노스 외교부 양자차관은 2020.11월 한-중남미 미래포럼 참석
- 솔라노 외교부 장관은 2021.3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 참석
- 볼라노스 외교부 양자차관은 2021.10월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참석

10.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체결
 - 전주-산호세(San José) 상호 우호교류 MOU 체결
 - 서울시 성북구-투리알바시(Turrialba) 상호 우호교류 MOU 체결
 - 서울시 성동구-모라시(Mora) 상호 우호교류 MOU 체결
 - 서울시 양천구-그레시아시(Grecia) 상호 우호교류 MOU 체결
- 전국사회경제 지방정부협의회-코스타리카 간 교류협력
 - 2017.6월 지방정부협의회와 노동사회부와 협약 체결
 - ※ 성동구청장이 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협약 체결
 - 2018.6월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단, 모라시 방문
 - 2019.7월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단 코스타리카 방문 계기에 양국 지방 정부발전을 위한 협의회간 MOU 체결

11. 문화·학술·스포츠 교류

- 1966.07 한-코스타리카 문화협정 체결
- 1975.11 한-코스타리카 친선문화협회 결성

- 1982.08 코스타리카 국립민속무용단 방한 공연
- 1985.05 한-코 올림픽위원회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 1995.05 국립중앙극장 무용단 공연
- 1997.09 화가 김순옥 미술전시회 개최
- 2004.04 국립국악원의 전통예술단 공연
- 2005.09 전북국악원 문정근 무용단 공연
- 2008.10 제1회 한-코 교류전 및 코스타리카 밴드 Editus 방한 공연
- 2009.06 솔리스트 금호영재 공연
- 2010.06 베리타스 대학에서 한국영화주간 행사 개최
- 2010.08 코스타리카 국제음악제 전통음악팀 정가악회 현악 4중주팀 공연
- 2011.02 Universidad Nacional 대학에 한국어 강좌 개설
- 2011.03 제13차 국제예술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
- 2011.11 피아니스트 백건우 공연
- 2012.03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석
- 2012.03 한국영화제 개최
- 2012.06 코스타리카 공예가 Gerardo Alvarado, 전주 아태 무형 문화유산축제 참여
- 2012.10 코스타리카 민속무용단 Inspiración Costarricense, 천안 춤축제 참가
- 2013.08 코스타리카대학에 한국학 및 한국어 강좌 개설



- 2013.11 한국영화제 개최
- 2014.04 제14차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참가
- 2014.10 민족음악원 국립극장 공연
- 2014.11 한국영화제 개최
- 2015.03 백건우 피아니스트 국립극장 공연
- 2015.09 이철진 전통춤 예술가 초청공연 개최
- 2015.10 전통무용단 ‘수려’ 공연 및 전통춤 강연 개최
- 2015.10 한국영화제 개최
- 2016.03 전통예술팀 ‘예향’ 공연 개최
- 2016.10 한국 태권도 시범단 공연
- 2016.11 한국영화제 개최
- 2016.12 희방전통문화원 전통춤 공연
- 2017.03 “Copa Corea 2016” 축구대회 개최
- 2017.05 경기도 도립무용단 공연
- 2017.09 숙명가야금 연주단 공연
- 2017.11 한국영화제 개최
- 2018.02 “Copa Corea 2017” 축구대회 개최
- 2018.08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무용단 공연
- 2018.11 한국영화제 개최
- 2018.12 “Copa Corea 2018” 축구대회 개최

- 2019.11 한국영화제 개최
- 2020.02 영화 “기생충” 특별 상영(알바라도 대통령 내외 참석)
- 2020.06 국영방송사(SINART)가 만화영화(“뽀로로 시즌3, 타요”) 방영
- 2020.09 국영방송사(SINART)가 한국드라마(“고백부부”) 방영
- 2020.11 한중남미협회-중남미사회과학원(FLACSO)간 외교정책 세미나
- 2021.09 제1차 한-중남미사회과학원(FLACSO) 미래대화
- 2021.09 국영방송사(SINART)가 한국드라마(“단 하나의 사랑”)를 방영 중이며, “대장금”방영 예정
- 2021.09 제1차 한-중남미사회과학원(FLACSO) 미래대화

12. 한국어·한국학

- 현재 2개 국립대학(UCR/UTN)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 중
 - 코스타리카대학(UCR) : 2012.8월 친치야 대통령 방한 계기 KF-UCR 협력협정 체결, 현재 KF 지원으로 2명의 객원교수를 파견하여 한국학과 한국어 강의, 2020.6월 세종학당으로 신규로 지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최근 대학의 예산, 행정사정 등으로 금년 12월까지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
 - 국립기술대학(UTN) : 2014.11월 세종학당을 개설·운영하였으나, 2018년 세종학당재단은 운영조건 미비를 이유로 폐쇄하였으며, 이후 국립기술대학은 자체적으로 우리 교민 한성엽 교수 지도하에 한국어 강좌 운영 중



- 코스타리카대학(UCR)과의 협력 관계
 -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 한국학 강좌 운영
 - 코리아코너 운영 지원 : 2016.12월 대학 국제학부 내에 코리아코너를 개관하고, 우리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전시물품, KF 지원 도서, DVD 등 비치
 - 세종학당 지정 후 2020.9~12월간 한국어 강좌 운영(온라인) 및 2021.5월초 2주간 파견 교원에 의한 온라인 무료특강 진행
- 대한민국학교(Escuela de República de Corea) 지원
 - 당초 미국 지원으로 설립된 학교였으나, 1983년 대사관과 Quepos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배경으로 학교명칭을 “대한민국학교”로 개명하여 현재까지 명칭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500여명의 학생 전원이 코스타리카 학생
 - 매년 졸업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및 졸업생에 선물 전달

13. 태권도

-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다른 국가에 비해 태권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전국 150여개 태권도장에서 2만 5천여명 수련 중
- 대사관과 코스타리카 태권도협회가 공동으로 매년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 중
 - 통상 약 2천명의 선수와 5천명 이상의 관중이 참석
- 2021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중남미 태권도 지역예선을 중미지역 최초로 코스타리카에서 개최(2020.3월)

14. 한류

가. 일반 현황

- 코스타리카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한국드라마 방영에서 시작되어 영화와 K-Pop, K-Food 등으로 확산 중
 -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물론, K-Pop, K-Drama 팬클럽, 한국문화동호회 등 자발적인 한류 동호회가 형성

나. 분야별 현황

- (K-Pop) BTS, 블랙핑크, MONSTA X 등의 그룹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코스타리카 팬들이 Facebook을 중심으로 팬클럽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십개의 K-Pop 팀들이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활동 중
 - 방송에서도 K-Pop을 자주 들을 수 있으며, K-Pop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인터넷사이트(Radio KPOP CR)도 있음
- (K-Drama) 2001년 <별은 내 가슴에>가 국영방송에서 방영된 이후 <이브의 모든 것>, <가을동화>,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내이름은 김삼순>이 연속 방영
 -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2009년 방영된 <대장금>으로, 당시 시청자들은 방송국과 대사관에 뜨거운 반응을 표명
 - ※ 국영방송사(SINART)와 협력 하에 금년 하반기에 <대장금> 재방영 예정
 - 2012-15년 <내조의 여왕>, <아가씨를 부탁해>, <내조의 여왕> (재방영), <드림하이>, <공주의 남자>, <시크릿 가든>, <기황후> 연속 방영
 - 2020.9월 국영방송사에서 <고백부부>, 2021.9월 <단 하나의 사랑>을 방영 중이며, 이어 <대장금> 재방영 예정



- 한편,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나빌레라>,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드라마가 코스타리카 내에서 인기 급상승 중
- (영화) 1994.2월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코스타리카에서 최초로 상영되었으며, 매년 하반기에 대사관 주최 한국영화제를 개최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로 미개최
 - 넷플릭스,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영화를 접하는 코스타리카 한류 팬들도 상당한 숫자
 - 2011.11월 배우 윤정희가 방문하여 칸 영화제 수상작인 <시> 감상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과 2014년에는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계기에 한국영화를 상영
 - 2019.11월 대사관 주최 한국영화제에서 <기생충>이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20.2월 코스타리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재상영
- (K-Food) 코스타리카 내에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의 김치, 갈비, 삼겹살, 떡볶이 등이 유행
 - 한국식당에 현지인들의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한인들은 한국식당 개업 또는 확장 중

15. 한인사회 및 영사 관계

가. 한인사회 현황

- 재외동포 수 : 405명(2020.12월 코스타리카 통계 기준)
 - 시민권자 45명, 영주권자 181명, 체류자 181명

- 한인사회 개요
 - 1960년대 남미로 이민 시작후 70년대에 태권도 사범 등이 코스타리카에 정착
 - 1980년대에 봉제공장 등 여러 기업들이 코스타리카에 진출하였으나, 임금상승과 IMF 위기 등으로 철수 또는 저임금의 주변국으로 이전
 - 철수 중소기업 근무자 중 상당수가 코스타리카에 이민으로 잔류하여 현재는 대부분 안정된 생활 유지(주로 의류업, 중고차 판매, 자동차 부품 판매업 종사)
- 김종관 씨는 2020.2월 지방선거 결과, 우리 동포로서는 최초로 Quepos 시장으로 당선 및 2020.5월 4년 임기로 취임
 - ※ 코스타리카 최초, 중남미 지역 2번째 한인 출신 시장
- 주요 기업으로는 세아방직, 대우버스, 삼성전자 등이 운영
 - 동포들은 버스노선 운영, 자동차 관련업, 여행업, 호텔업, 한식당, 커피업 등에 종사

나. 한인기관

- 한인회
 - 창립일 : 1983.10.30
 - 제22대 회장 : 강영무(2년 임기 : 2020-2021)
 - 임원 : 황민상(부회장), 정선임(부회장), 전영길(감사), 김부양(총무)
 - 매년 설날 교민행사, 교민 체육대회, Copa Corea 등을 개최하여 왔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 제20기 민주평통 자문위원(4명) : 강영무, 김성중, 정선임, 조용복
 - 임기 : 2021.9.1- 2023.8.31.(2년)
 - 지역협의회(중미카리브협의회 소속)



○ 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 한인교회 내 교실 임차
- 교장(민철규, 2020-2022) 등 8명의 교사진으로 구성, 한국인 및 현지인 학생 대상 교육
- 재외동포재단 지원 한글학교 운영 지원금과 기타 후원금, 소액의 수업료로 운영
- 대사관 견학, TOPIK 시험, 교사세미나, 역사문화 엑스포 등 실시

다.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 한인회 주최 연례 설날 큰잔치 행사, 교민체육대회(4-5월경), Copa Corea 코스타리카 초청 축구대회(하반기) 개최 등
 - ※ 2020년 및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
- 연말 아동복지단체(보육원) 방문
 - 카르타고(Cartago) 소재 Hogar de Niños Baik Guadalupe 보육원에 생필품 전달 및 대우버스 임원진들과 봉사활동

라. 재외국민 보호 활동

- 예방활동(안전공지, 대피훈련 등)
 - 지진, 화산, 질병 등 각종 위기상황을 언론, 관련기관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
 - ※ 화산, 지진 등 자연재해 코스타리카 기관 : Ovsicori, Red Sismologica Nacional, CNE(국가비상위원회) 등의 페이스북 팔로우를 통해 실시간 정보 받기
 - 상황 발생시 동포 대상 공지(홈페이지, 이메일, 한인회 공지 등)
 - 우리나라 안전여행경보 정기적 업데이트 보고 등

- 각종 매뉴얼 업데이트 및 대피 훈련
 - 재난발생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매뉴얼 업데이트
 -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 훈련, 도상훈련 실시 등
- 영사설명회 및 순회영사 : 연 1~2회 실시, 재외국민 거주 지방출장 실시

República de



Costa Rica

VIII. 북한과의 관계



1. 외교 관계

- 1974.2.10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1983.12.2 단교
 - 북한의 아웅산 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단교
- 1982년 이후 북한요원의 입국사증 발급 거절

2. 경제 관계

- 1983년 단교 이후 코스타리카와 북한 간 경제관계도 전무

코스타리카 개황

- 인 쇄 | 2021년 11월
- 발 행 | 2021년 11월
- 발행처 | 외교부 중남미국 중미카리브과
- 디자인 | 주)마스타(출판등록 제2011-000063호)
- 인 쇄·제 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